

52

第52回 韓日經濟人會議

報告書

THE 52nd KOREA-JAPAN BUSINESS CONFERENCE

2 0 2 0 . 1 1 . 2 7

SEOUL  TOKYO



(좌) 손봉락 TCC STEEL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유명환 전 장관, 류진 풍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남관표 주일한국대사,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후쿠다 야스오 전 내각총리대신,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스미토모화학(주) 회장

| 서울회의장 전경 |



| 동경회의장 전경 |



| 개최인사 |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 내빈인사 |



후쿠다 야스오 전 내각총리대신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회장



남관표 주일한국대사

| 기조연설 |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스미토모화학(주) 회장

| 전체회의 |

〈좌 장〉



다카다 노부아끼 NRI사회정보시스템(주) 시니어컨설턴트



〈발표자〉



이미즈 하루히로 (주)일간공업신문 사장



정구현 제이캠퍼스 대표연구원



후지요시 유우코우 SJC 이사장



박순찬 현대자동차 연료전자사업실 상무

| 질의응답 |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주) 회장



정구현 제이캠퍼스 대표연구원



후지요시 유우코우 SJC 이사장



모리야마 토모유키 한국미쓰이물산(주) 사장



김대하 (주)농심Japan 대표이사



오쿠보 타쿠마 JKSFF, 쇼치쿠(주)

| 공동성명낭독 |



서석송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우치다 토시아키 일한경제협회 상무이사

| 폐회인사 |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목 차

I. 개최성과	1
II. 공동성명	4
III. 회의일정	6
IV. 주요 발표 내용	8
V. 대표단 명단	
1. 한국측 대표단 명단	11
2. 일본측 대표단 명단	17
VI. 의 사 록	23
1. 개 회 식	
(1) 단장인사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단장	25
김 윤(金 鎭) 단장	27

(2) 내빈인사

후쿠다 야스오(福田 康夫) 제91대 내각총리대신	28
박기영(朴起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29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일한의원연맹 회장	31
남관표(南官杓)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32

2. 기조강연

(1) 일본측 기조강연

도쿠라 마사카즈 (十倉 雅和) 스미토모화학(주) 회장	34
-------------------------------------	----

(2) 한국측 기조강연

홍석현(洪錫炫) 한일비전포럼 대표 · 중앙홀딩스 회장	40
-------------------------------------	----

3. 전체회의

(1) 이미지 하루히로 (井水 治博) (주)일간공업신문 사장 ·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46
------------------	----

『제3국에 있어서 한일기업의 연계와 현지 공헌』

(2) 정구현(鄭求鉉) 제이캠퍼스 대표연구원 · 前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 49

『코로나 사태와 GVC의 변화』

(3) 후지요시 유우코우 (藤吉 優行) SJC이사장 ·

한국미쓰비시상사(주) 대표이사사장 ...	53
------------------------	----

『코로나 상황에서의 한국내 일본기업 상황 및 향후 기대』

(4) 박순찬(朴舜贊) 현대자동차 연료전지사업실장 · 상무

『수소 사회 도래와 비전 2030』

4. 폐 회 식

(1) 공동성명 채택	66
(2) 단장인사	
김 윤(金 鎭) 단장	68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단장	68
(3) 폐회	

[부록]

1. 주요 언론 기사 모음	75
2.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설문(의견)조사 결과	105
3. 프레젠테이션 자료	111

I.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성과

1. 개요

- 1) 개최일시 : 2020. 11. 27(금) 13:30~17:30
- 2) 개최장소 : JW메리어트호텔 - 오쿠라호텔 도쿄 화상회의
- 3) 참가자 : 한일 양국 경제인 등 207명
 - 한국 측 : 김 윤(金 鈞) 한일경제협회 회장 등 98명
 - 일본 측 : 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 등 109명
- 4) 회의주제 : 미래를 여는 한일협력! - 2020 SDGs 신시대 -
~'After 코로나'를 창출하는, 한일연계를 구축~

2. 개최 결과

1) 개최 성과

- ☐ 코로나 팬데믹과 한일 간 여러 갈등으로 인해 양국교류 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중단없이 경제협력의 끈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음
 - 한일경제협력 추진을 위해, 한일경제인회의를 1969년 이래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개최, 연 인원 11,429명에 이르는 네트워크를 구축
 - 5회 연기 : '91년 걸프전쟁, '11년 동일본대지진, '17년 한국 대선, '19년 한일 갈등
 - '20년 코로나 팬데믹
-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신시대 선언 등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출구가 보이지 않는 한일관계의 물꼬를 트는 회의가 되었음

- 양국의 상호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 경제·인재·문화교류 지속과 확대를 위한 대응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제3국에서의 한일 협업, SDGs 달성, 저출산·고령화·제4차산업혁명·탈탄소 사회·글로벌 밸류체인 구축 등 공동과제 해결, 도쿄올림픽 성공개최 등과 같은 과제에 대해 연계해 추진해 나가기로 선언

〈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주요내용 〉

- 경제·인재·문화교류 지속과 확대를 위한 대응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합의
- △ RCEP(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합의 환영 및 제3국 한일협업 추진
- △ SDGs의 달성
- △ 저출산·고령화·제4차 산업혁명·탈탄소 사회·글로벌 밸류체인 등 공동과제 해결
- △ 청소년 교류·지역간 교류 활성화
- △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성공개최 등을 위해 상호 협력

-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연합뉴스, NHK, 산케이신문 등 국내외의 주요 언론매체 보도를 통해 한일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
- 언론사 지면·사진기사 포함 80여건의 기사가 온/오프라인에서 보도됨

2) 종합평가 및 향후 후속조치 계획

- 종합평가
 - 지난 5월 개최예정이었던 회의를 한차례 연기한 이후에 한일을 웹으로 연결하여

열린 첫 화상회의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양국 관계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한일 협력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의

- 코로나 팬데믹, 수출 규제, 불매운동이 지속되는 등 한일협력에 대한 우려가 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200명을 넘어서는 양국 경제인들이 회의에 참가함으로써, 양국 경제계의 한일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음
 - 당초 참가규모가 한국 131명, 일본 128명(한국회의장 142명, 일본회의장 117명)이었으나,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인해 규모축소 (131명 → 98명)

□ 향후 후속조치 계획

- (1) 회의결과 요약 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제작, 발송
- (2) 대정부 공동성명서 제출
- (3)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논의 의제 선정

II.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미래를 여는 한일 협력 - 2020 SDGs 신시대 -」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를 2020년 11월 27일에 일본국 도쿄도에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와 온라인 접속하여 개최하였으며, 한국 측에서는 김윤 단장 등 98명,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단장 등 109명이 참가하였다.

현재, 한일의 경제계를 둘러싼 환경은,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단기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의 빠른 회복을 바라마지 않는다. 최일선에서 온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 양국의 의료 종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테마로 내건 SDGs는, 지속가능하고 보다 나은 세계를 지향하는 국제목표로, ‘건강과 복지’ 면에서 감염증 대책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 외에도 경제성장과 산업, 빈곤, 교육, 회복력(resilience) 등이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 19에 대한 영향을 극복해 나가는 것 자체가 SDGs의 대차이기도 하다.

경제면에서는, 한일 양국에 있어서 더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영향이 있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한일 경제인은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형태의 교류를 시작하고 있다. 이번 한일경제인 회의도, 온라인으로 양국을 연결하는 형태로 개최할 수 있었으며, 인재·문화교류에 있어서도 web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양국 경제인은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미래를 여는 한일협력 - 2020 SDGs신시대-’를 테마로, 진솔하게 양국 경제관계에 대해 토의했다. 그 결과, 상호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 아래와 같은 과제에 대해 연계해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기에 함께 선언한다.

- 아 래 -

1. 경제·인재·문화교류의 중요성을 확고히 받아들이고, 지속과 확대를 위한 대응을 강력히 추진한다.
- (1) 한일 경제인은 이번 RCEP(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합의를, 자유롭고 폭넓은 무역·투자의 확대와 한일 기업의 제3국에서의 협업 등 경제활동 추진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환영한다.

(2) 또한, SDGs의 달성, 저출산·고령화·제4차 산업혁명·탈탄소 사회·글로벌 밸류체인 등 공통과제 해결을 위해,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한다.

(3)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통해 청소년 교류·지역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이해·상호 신뢰에 입각하여 한일우호의 인프라로서 흔들림 없게 추진해 나간다.

(4) 양국 정부에 대해서는, 본래의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한 민간교류를 한층 더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서포트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도, 원활한 비즈니스 왕래의 재개가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시책의 실시를 강력히 요망한다.

2.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계속 협력한다.

그리고, 다음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를, 2021년 한국에서 개최한다.

2020년 11월 27일

한국측 대표단 단장 김 윤
일본측 대표단 단장 佐々木幹夫

Ⅲ.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일정

THE 52nd KOREA-JAPAN BUSINESS CONFERENCE

11:30 ~ 13:20 오찬교류회 ----- 3F Salon 1,2,3
13:30 ~ 14:15 개회식 ----- 5F Grand Ballroom

13:30 ~ 13:40 개회

13:40 ~ 14:00 단장인사

-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단장 (일한경제협회 회장 ·
前 미쓰비시상사 회장)
- 김 윤(金 鈞) 단장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

14:00 ~ 14:15 내빈인사

-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제91대 내각총리대신
- 박기영(朴起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일한의원연맹 회장
- 남관표(南官杓)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14:15 ~ 15:00 기조강연

14:15 ~ 14:35 도쿠라 마사카즈(十倉 雅和) 스미토모화학(주) 대표이사회장

14:40 ~ 15:00 홍석현(洪錫炫) 한일비전포럼 대표.중앙홀딩스 회장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 21세기의 건전하고 안정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

15:00 ~ 15:20 COFFEE BREAK

15:20 ~ 17:00 전체회의

좌 장 : 다카다 노부아끼(高田 伸朗)

NRI사회정보시스템(주) 시니어컨설턴트

15:20 ~ 15:25 좌장 인사 및 진행 설명

15:25 ~ 15:40 이미즈 하루히로(井水 治博) (주)일간공업신문 사장 ·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제3국에서 한일기업의 연계 및 현지 공헌」

15:40 ~ 15:55 정구현(鄭求鉉) 제이캠퍼스 대표연구원 · 前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코로나 사태와 GVC의 변화」

15:55 ~ 16:10 후지요시 유우코우(藤吉 優行) SEOUL JAPAN CLUB 이사장 ·

한국미쓰비시상사(주) 대표이사사장

「코로나 상황에서의 한국내 일본기업 상황 및 향후 기대」

16:10 ~ 16:25 박순찬(朴舜贊) 현대자동차 연료전지사업실장 · 상무

「수소 사회 도래와 비전 2030」

16:25 ~ 16:50 질의응답

16:50 ~ 16:55 좌장총괄

17:00 ~ 17:10 휴식 (공동성명(안) 배포)

17:10 ~ 17:30 폐회식

17:10 ~ 17:15 폐회

17:15 ~ 17:20 공동성명 채택 (양국 낭독)

17:20 ~ 17:25 양국단장 폐회인사

17:25 ~ 17:30 종료선언

18:00 ~ 19:30 만찬교류회 ----- 3F Salon 1,2,3

IV.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주요 발표내용

(개회사)

□ (韓) 김 윤(金 鈞) 한일경제협회 회장

- 양국정부 합의로 ‘비즈니스 트랙’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기업인 왕래의 길을 열어 준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하고, 더 자유롭고 간결한 입국·격리면제·김포-하네다 국제선 재개 등 양국 경제협력에 필수적인 추가적 조치들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제언
- 최근 한일 양국의 갈등해소 노력으로 양국 정부간 대화와 소통의 움직임이 있음을 환영
- 저출산, 고령화, 지역 활성화, 4차 산업혁명 등 해결해야만 하는 공통의 과제들도 산적해 있기에,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

□ (日)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

- 세계를 둘러싼 정세는 신종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회의 테마로서 내건 SDGs는 지속가능하고 보다 나은 세계를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개발 목표로, 신종 코로나에 의한 영향을 극복해 가는 것 자체가, SDGs의 대처임을 강조
- 글로벌화에 의해서 세계가 보다 폭넓게 결합되는 가운데, 리스크와 위기도 전세계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깨달았으며, 동시에 회복을 위한 노력도 세계가 손을 잡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축사)

□ (韓) 박기영(朴起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 한일 양국 간의 경제교류는 한일관계를 지탱해 온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며, 양국 간 경제 교류는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
- 코로나 19 위기극복, 신산업·에너지분야 협력, 양국의 협력을 더 넓은 범위로 확대

□ (韓) 남관표(南官杓) 주일본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 전세계 교역·GDP·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메가 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 한일간 최초의 FTA로서, 양국간 협력을 한 단계 높여 나가는 디딤돌
- 기업인 신속통로(Fast track) 제도가 양국간 합의되어 시행, 양국 기업인간의 비즈니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노력

□ (日) 후쿠다 야스오(福田 康夫) 제91대 내각총리대신

-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중단없이,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에 경의와 축하
-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 가까워야할 이웃이나 정치·외교관계로 어려운 국면, 개선위한 분발
- 민간교류의 중요성, 제3국 연계진출 매우 중요, 양국 고교생교류캠프 등 풀뿌리 교류, 주한일본계기업 인턴십 수용,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류지속 및 민간활동 발전을 기원

□ (日)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일한의원연맹 회장

-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로서 한일경제인회의 온라인 개최를 축하, 젊은 세대의 제4차 한류붐, 국민 간 순수한 마음으로 장점을 인정하면서 상호협력 분위기 조성
- 한일의원연맹 간 교류, 정상회담할 수 있는 환경만들기 노력, 대화의 파이프 가동

(기조강연)

□ (韓) 홍석현(洪錫炫) 한일비전포럼 대표·중앙홀딩스 회장

- 한일협정 60주년인 2025년을 목표로, 지금부터 역사화해 프로세스 돌입할 것과 한일판 엘리제 조약(1963년 독일·프랑스 화해협력 조약) 체결을 제안
- 과거사 해결은 미래를 공유함으로써 해결, 동아시아공동체 실현, 오늘의 중국을 만든 덩샤오핑의 지혜를 상기, 일본을 문명국이자 경제 안보의 파트너로 대우 필요
-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중대한 전기(한중일 정상회의, 도쿄올림픽), 양국 정상만 만나서 타협점을 찾는 노력 필요, 코로나19 방역협력, 동북아 전력 슈퍼그리드 구축, 한일 FTA 체결
- 4차산업에서 체계적인 협력 패러다임 구축, 에너지·기후변화·녹색성장 협력, 도쿄 올림픽 협력, 북일 국교정상화 협력, 아시아 평화 경제 공동체 구축 등

□ (日) 도쿠라 마사카즈(十倉 雅和) 스미토모화학(주) 회장

-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 고조(ESG투자·SDGs·파리협정), 스미토모 화학의 사업정신과 기업가치향상 이미지, 미래지향의 한일관계
- 공통의 가치관·공통과제, Society 5.0 for SDGs '함께 창조하는 미래' 한일기업은 미래지향의 한일관계구축, 협력·혁신으로 사회과제극복 (참고) Society 1.0(수렵), 2.0(농경), 3.0(공업), 4.0(정보), 5.0(초스마트사회)

(전체회의)

□ (韓) 정구현(鄭求鉉) 제이캠퍼스 대표·前삼성경제연구소 소장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

- COVID-19가 보호주의(무역전쟁·수출입규제) 및 세계생산분업(GVC)악화 추세를 가속화, 가치사슬의 지역화 진행(미국·독일·아세안), 동아시아지역 생산분업(EAVC) 부상, 서방측의 탈중국 GVC 시도, 한일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EAVC : GVC decoupling)

- 기업들은 안보(안정공급)리스크도 고려하지만 비용·효율성도 중요, 단기간 GVC변화 어려움

□ (韓) 박순찬(朴舜贊) 현대자동차 연료전지사업실장·상무
「수소사회 도래와 비전 2030」

-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그린뉴딜로 수소사회 도래, 온실가스 감축 위한 연비규제강화·수소전기차와 전기차의 비용균형점(355km)발생·수소의 역할확대(수송, 산업용, 건물용 등)

- 수소경제라는 신산업분야 ‘퍼스트 무버’로서 수소가 주요 에너지인 수소사회를 선도

□ (日) 이미즈 하루히로(井水 治博) (주)일간공업신문 사장·일한경제협회부회장
「제3국에서의 한일기업의 협력과 현지공헌(가제)」

- 신종코로나에 의한 세계경제위기, 생산거점 재검토와 서플라이 체인 재구축 큰 변혁, 제3국에서의 자원개발·인프라 정비 협력사례 소개, 경쟁이 아닌 제휴에 의한 수익창출 인식 확대, 시찰 미션을 계속해 가는 것이 향후 한일기업의 협업확대로 연결

- 13년 인도네시아(LNG)·태국(산업단지), 14년 미얀마(인프라), 21년 말레이시아(에너지)

□ (日) 후지요시 유우코우(藤吉 優行) SJC이사장·한국미쓰비시상사(주) 대표이사
「COVID 19 사태 속, 재한 일본기업의 현상과 향후의 기대」

- SJC의 활동, COVID19 영향과 현상(비즈니스 왕래지장), 일본계기업 441사 설문조사(생산·기술등 주재원 한국파견 수요 등), 한일경제연대의 특징과 비즈니스교류 중요성·왕래재개 요청

- 한일 비즈니스트랙 실현, 하네다-김포노선 부활요망, 긴밀한 비즈니스 왕래와 정상화가 한일관계개선의 길, 관광·유학 등 민간교류 회복 및 인적교류 확대 기대

V. 대표단 명단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THE 52nd KOREA-JAPAN BUSINESS CONFERENCE

2020. 11. 27 SEOUL, KOREA / TOKYO, JAPAN

韓國側 代表團 名單

區分別 姓名 가나다 順

區 分	姓 名	會社・團體名 / 職位
團 長	金 鉦 KIM Yoon	(社)韓日經濟協會 會長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理事長 (株)三養 HOLDINGS 會長
副 團 長	柳 斗 馨 RYOO Du Hyung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代行 HANWHA SOLUTIONS 社長
副 團 長	柳 津 JinRoy RYU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豊山Group 會長
副 團 長	孫 鳳 洛 SOHN Bong Rak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TCC STEEL 會長
副 團 長	辛 東 彬 SHIN Dong Bin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LOTTE Group 會長
副 團 長	李 仁 用 RHEE In Yong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三星電子(株) 社長
副 團 長	徐 錫 崇 SEO Seok Soong	(社)韓日經濟協會 常勤副會長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專務理事
來 賓 (來賓祝辭)	朴 起 永 PARK Ki Young	産業通商資源部 通商次官補
東京參加 (來賓祝辭)	南 官 杓 NAM Gwan Pyo	駐日本大韓民國大使館 特命全權大使
來 賓	柳 明 桓 YU Myung Hwan	金・張法律事務所 顧問 前 外交通商部 長官
特別參加 (基調演說)	洪 錫 炫 HONG Seok Hyun	韓日VISION FORUM 代表 中央HOLDINGS 會長 前 駐米大韓民國大使
特別參加 (主題發表)	鄭 求 鉉 JUNG Ku Hyun	J Campus 代表研究員 前 三星經濟研究所 所長
特別參加 (主題發表)	朴 舜 贊 PARK Soon Chan	現代自動車 燃料電池事業室長・常務

團	員	李 LEE	景 Gyung	載 Jae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 (株)三進LND 會長
團	員	李 LEE	洙 Soo	喆 Chul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 (株)GH Holdings 會長
團	員	朴 PARK	南 Nam	淑 Sook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 共生國際特許情報(株) 代表
團	員	朴 PARK	仁 In	求 Gu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 東遠GROUP 副會長
團	員	高 KOH	光 Kwang	國 Kuk	韓南大學校 客員教授
團	員	高 KO	光 Kwang	立 Rip	越南經濟研究阮 副院長
團	員	權 KWON	寧 Yeung	定 Jeung	KOMAR 代表理事
團	員	金 KIM	東 Dong	宣 Sun	AASE 社長
團	員	金 KIM	堯 Yo	大 Dae	金&長法律事務所 會計士
團	員	金 KIM	在 Jae	南 Nam	(株)泰光物産 常務理事
團	員	金 KIM	賢 Hyun	日 Yel	殷珉洋行 代表理事
團	員	盧 ROH	玕 Woo	爽 Seok	LS ELECTRIC 部長
團	員	南 NAM	基 Key	善 Sun	韓國國際規格認證院 副院長
團	員	昴 HOSHI		星 Subaru	三鎬貿易(株) 代表理事
團	員	朴 PARK	佳 Ga	惠 Hye	光陽灣圈經濟自由區域廳 主務官
團	員	朴 PARK	光 Kwang	淳 Soon	韓一金屬工業(株) 社長
團	員	朴 PARK	均 Gun	洙 Su	富川鑄物 專務
團	員	方 BANG	惠 Hye	景 Kyung	(社)韓國貿易協會 次長

團	員	徐	禎	培	(株)三養社 常務
		SEO	Jeong	Bae	
團	員	宋	淳	坤	IRIS KOREA Co., Ltd. 代表理事
		SONG	Sun	Gon	
團	員	余	京	珠	새만금開發廳 事務官
		YEO	Kyeong	Joo	
團	員	梁	承	範	Seungjin International 代表理事
		Henry		YANG	
團	員	李	南	恩	一虎ENG 代表理事
		LEE	Nam	Eun	
團	員	李		範	새만금開發廳 課長
		LEE		Beom	
團	員	李	善	峴	新星電子企業(株) 代表理事
		LEE	Sun	Hwan	
團	員	李	承	雨	Cruise Marina Bay Co., Ltd. 會長
		LEE	Sung	Woo	
團	員	李	龍	燮	亞太經濟研究院 副院長
		LEE	Yong	Seop	
團	員	李	夏	慶	中央日報 副社長
		LEE	Ha	Kyung	
團	員	林	幸	根	HK Chem Corporation CEO
		LIM	Haeng	Keun	
團	員	全	基	用	POSCO經營研究院 首席
		JEON	Ki	Yong	
團	員	鄭	竣	明	金・張法律事務所 常任顧問
		CHUNG	June	Myong	
團	員	鄭	成	勳	東京鐵鋼(株) 理事
		JUNG	Sung	Hun	
團	員	丁	俊	浩	(株)三養 HOLDINGS 次長
		JEONG	Jun	ho	
團	員	鄭	泰	承	DAESUNG INDUSTRIAL Co., Ltd. 顧問
		CHUNG	Tae	Seung	
團	員	鄭	珠	利	새만금開發廳 主務官
		JEONG	Ju	Ri	
團	員	陳	官	輝	(株)京德產業 代表理事
		JIN	Kwan	Hui	

團 員	晋 JIN	玉 Ok	童 Dong	新韓銀行 銀行長
團 員	蔡 CHAE	承 Seung	默 Mook	E&B Consulting 首席
團 員	崔 CHOI	珉 Min	碩 Suk	(株)韓永SEMICON 室長
團 員	黃 HWANG	眞 Jin	吾 O	三星電子(株) PRO
團 員	洪 HONG	起 ky	正 Jeong	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指導委員
團 員	洪 HONG	鉉 Hyeon	豪 Ho	大韓製糖(株)常務
東京參加 團 員	姜 KANG	天 Chun	一 Il	BOBOS JAPAN Corp. Manager
東京參加 團 員	孔 KONG	康 Kang	貴 Gwi	PANTOS LOGISTICS JAPAN Inc. 代表理事
東京參加 團 員	金 KIM		建 Gun	中小Venture企業振興公団日本事務所 所長
東京參加 團 員	金 KIM	大 Dae	廈 Ha	(株)農心Japan 代表理事
東京參加 團 員	金 KIM	容 Yong	煥 Hwan	大韓製糖(株) 東京支社 支社長
東京參加 團 員	金 KIM	和 Hwa	男 Nam	(社)在日韓國人投資協會 會長
東京參加 團 員	金 KIM	厚 Hoo	德 Duck	(株)三養社 東京支店 代表理事
東京參加 團 員	林 LIM	暻 Kyung	逸 Il	CJ Japan(株) 代表理事社長
東京參加 團 員	林 LIM	炳 Byoung	善 Seon	DI Japan(株) 代表理事
東京參加 團 員	朴 PARK	龍 Yong	奎 Gyu	韓國貿易協會 東京支部 支部長 (駐日韓國企業連合会事務局)
東京參加 團 員	朴 PARK	容 Yong	珉 Min	韓國全國經濟人聯合會 東京事務所 所長
東京參加 團 員	朴 PARK	栽 Je	世 Sae	TECHNOPIA Co., Ltd. 代表理事

東京參加 團 員	西 尾 NISHIO	浩 敏 Hirotoshi	GOLFZON Japan(株) COO
東京參加 團 員	宋 SONG	河 昇 Ha Seung	JAMS Co., Ltd. 代表理事
東京參加 團 員	申 SHIN	弼 圭 Pil Kue	KT JAPAN Co., Ltd. 代表理事
東京參加 團 員	吳 OH	敬 洙 Kyong Soo	ASIANA航空(株) 日本地域 本部長
東京參加 團 員	吳 OH	尚 容 Sang Yong	Asia LNG Hub(株) 代表理事
東京參加 團 員	尹 YOON	錫 龜 Suk Koo	KBS JAPAN(株) 代表理事
東京參加 團 員	鄭 CHUNG	東 民 Dong Min	HYUNDAI SUNGWOOL SOLITE Co., Ltd. 東京支店 常務
東京參加 團 員	趙 CHO	容 一 Yong Il	韓国貿易協会 東京支部 TEAM長 (駐日韓国企業連合会事務局)
東京參加 團 員	李 LEE	碩 雨 Suk Woo	(株)大韓航空 日本地域本部 本部長
東京參加 團 員	田 代 TASHIRO	直 之 Naoyuki	(株)KCC Japan 代表理事
東京參加 團 員	鄭 JUNG	外 永 Oi Young	KOTRA 日本地域本部(東京貿易館) 本部長兼東京貿易館長
東京參加 團 員	鄭 JUNG	一 泳 Il Young	三星物産(株) 建設部門 東京事務所 支店長
東京參加 團 員	趙 JO	康 来 Kang Rae	韓国銀行 東京事務所 所長
東京參加 團 員	千 CHUN	經 坡 Kyoung Pa	NKN(株) 代表理事
東京參加 團 員	玄 HYUN	東 實 Dong Shil	ASIANA STAFF SERVICE(株) 顧問
東京參加 observer	金 KIM	玟 澈 Min Cheol	駐日本大韓民國大使館 公使
東京參加 observer	李 LEE	鎔 煥 Yong Hwan	駐日本大韓民國大使館 商務官
東京參加 observer	金 KIM	琮 洛 Jong Lak	駐日本大韓民國大使館 商務官補

observer	鄭	相	溶	産業通商資源部 東北亞通商課 課長
	CHUNG	Sang	Yong	
observer	閔	勝	基	産業通商資源部 東北亞通商課 事務官
	MIN	Seung	Ki	
事務局	張	震	旭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室長
	CHANG	Jin	Wook	
事務局	劉	崇	勳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室長
	YOO	Sung	Hun	
事務局	金	度	勳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TEAM長
	KIM	Do	Hoon	
事務局	深	堀	すずか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前任研究員
	FUKAHORI		Suzuka	
事務局	車	恩	英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職員
	Cha	Eun	Yeong	
事務局	趙	慧	旻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職員
	CHO	Hye	Gyeong	
事務局	趙	德	卯	(社)韓日經濟協會 事務局長
	CHO	Duck	Myo	
事務局	金	正	鎬	(社)韓日經濟協會 部長
	KIM	Jung	Ho	
事務局	徐	光	賢	(社)韓日經濟協會 課長
	SUH	Kwang	Hyun	
事務局	李	裕	卿	(社)韓日經濟協會 代理
	LEE	You	Kyong	
事務局	朴	忍	宣	(社)韓日經濟協會 研究員
	Park	In	Sun	

第52回 日韓経済人会議

THE 52ND JAPAN-KOREA BUSINESS CONFERENCE

2020. 11. 27 TOKYO, JAPAN

《東京会場》

(敬称略・順不同)

団 長	佐々木 幹 夫 SASAKI MIKIO	(一社)日韓経済協会 会長
副 団 長	麻 生 泰 ASO YUTAKA	(一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 麻生セメント㈱ 代表取締役会長
副 団 長	上 田 勝 弘 UEDA KATSUHIRO	(一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 大垣精工㈱ 代表取締役会長
副 団 長	岡 素 之 OKA MOTOYUKI	(一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 住友商事㈱ 特別顧問
副 団 長	橋 本 和 司 HASHIMOTO KAZUSHI	(一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 東レ㈱ 顧問
副 団 長 発表者	井 水 治 博 IMIZU HARUHIRO	(一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 ㈱日刊工業新聞社 代表取締役社長
副 団 長	泉 谷 直 木 IZUMIYA NAOKI	(一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 アサヒグループホールディングス㈱ 取締役会長兼取締役会議長
副 団 長 基調講演	十 倉 雅 和 TOKURA MASAKAZU	(一社)日韓経済協会 諮問委員会副会長 住友化学㈱ 代表取締役会長
副 団 長	村 上 晃 彦 MURAKAMI NOBUHIKO	(一社)日韓経済協会 諮問委員会副会長 トヨタ自動車㈱ 東アジア・オセアニア・中東本部 本部長
来 賓	福 田 康 夫 FUKUDA YASUO	第91代内閣総理大臣
来 賓	額 賀 福志郎 NUKAGA FUKUSHIRO	日韓議員連盟会長 衆議院議員
特別参加 コーディネーター	高 田 伸 朗 TAKADA NOBUAKI	NR I 社会情報システム㈱ 事業企画部 シニアコンサルタント 事業構想大学院大学 客員教授
団 員	村 杉 雅 史 MURASUGI MASAFUMI	㈱ I H I グローバル・営業統括本部 経済協力・官民連携推進部 部長
団 員	魚 見 賢太郎 UOMI KENTARO	アノテーションソウル㈱ 代表取締役
団 員	京 基 樹 KYO MOTOKI	(公社)関西経済連合会 国際部 参与

団員	高 杉 暢 也 TAKASUGI NOBUYA	(社)韓日文化・産業交流協会 名誉会長
団員	橋 本 圭一郎 HASHIMOTO KEIICHIRO	(公社)経済同友会 副代表幹事・専務理事
団員	石 井 靖 幸 ISHII YASUYUKI	(公社)経済同友会 執行役
団員	宮 寄 加津美 MIYAZAKI KATSUMI	(公社)経済同友会 政策調査部 マネージャー
団員	小松崎 寛 KOMATSUZAKI KAN	J X 金属㈱ 執行役員 総務部・法務部・人事部担当 総務部長(兼)総務部秘書室長(兼)総務部リスクマネジメント室長
団員	市 村 勇 樹 ICHIMURA YUKI	住友化学㈱ 経営企画室 主席部員
団員	蔦 慶 子 TSUTA KEIKO	住友化学㈱ 経営企画室 主任部員
団員	藤 田 昌 和 FUJITA MASAKAZU	住友商事㈱ グローバル業務部 部長代理
団員	飯 塚 秀 之 IITSUKA HIDEYUKI	住友商事㈱ グローバル業務部 部長代理
団員	井 上 渉 INOUE WATARU	㈱日刊工業新聞社 執行役員 編集局長
団員	椋 田 哲 史 MUKUTA SATOSHI	(一社)日本経済団体連合会 専務理事
団員	野 村 良 寿 NOMURA YOSHIHISA	(一社)日本経済団体連合会 国際協力本部 上席主幹
団員	西 谷 和 雄 NISHITANI KAZUO	日本商工会議所 国際部 部長
団員	西 澤 正 純 NISHIZAWA MASAZUMI	日本商工会議所 国際部 課長
団員	小 関 友 寛 KOSEKI TOMOHIRO	日本商工会議所 国際部 主査
団員	三 宅 星 菜 MIYAKE SEINA	日本商工会議所 国際部
団員	山 本 大 介 YAMAMOTO DAISUKE	(一社)日本貿易会 政策第三グループ グループ長
団員	窪 田 修 KUBOTA OSAMU	(独)日本貿易振興機構 理事
団員	中 井 邦 尚 NAKAI KUNIHISA	(独)日本貿易振興機構 企画部 主幹
団員	河 野 円 洋 KAWANO MITSUHIRO	(独)日本貿易振興機構 企画課 課長代理
団員	川 西 太 士 KAWANISHI FUTOSHI	㈱博報堂 TOKYO 2020 推進室 室長
団員	成 瀬 太 郎 NARUSE TARO	㈱日立製作所 グローバル渉外統括本部 国際渉外部 担当部長

団 員	稲 積 和 典 INAZUMI KAZUNORI	丸紅(株) 市場業務部アジア大洋州チーム 課長
団 員	村 越 晃 MURAKOSHI AKIRA	三菱商事(株) 取締役常務執行役員
団 員	篠 原 徹 也 SHINOHARA TETSUYA	三菱商事(株) 地域総括部 部長
団 員	池 田 敦 IKEDA ATSUSHI	三菱商事(株) 地域総括部 地域運営室 統括マネージャー
団 員	藤 井 宏 侑 FUJII HIROYUKI	三菱商事(株) 地域総括部 地域運営室
団 員	是 永 和 夫 KORENAGA KAZUO	(一社)日韓経済協会 専務理事
特別参加	武 田 克 利 TAKEDA KATSUTOSHI	外務省 アジア大洋州局 北東アジア第一課 地域調整官
特別参加	宮 田 起三弘 MIYATA KIMIHIRO	外務省 アジア大洋州局 北東アジア第一課 課長補佐
特別参加	中 村 俊 朗 NAKAMURA TOSHIRO	外務省 アジア大洋州局 北東アジア第一課 外交実務研究員
特別参加	伊集院 健 夫 IJUIN TAKEO	経済産業省 通商政策局 地域通商政策研究官
特別参加	出 雲 晃 IZUMO AKIRA	経済産業省 通商政策局 韓国室 室長
特別参加	大 金 修 一 OHGANE SHUICHI	経済産業省 通商政策局 韓国室 室長補佐
特別参加	木 村 裕 介 KIMURA YUSUKE	経済産業省 通商政策局 韓国室 係長
特別参加	小 泉 慎 一 KOIZUMI SHINICHI	(株)ディー・エヌ・エー 常勤監査役
特別参加	箱 田 哲 也 HAKODA TETSUYA	朝日新聞社 論説委員
特別参加	出 石 直 IDEISHI TADASHI	NHK 解説主幹
特別参加	佐々木 錬 SASAKI REN	(株)国際協力銀行 インフラ・環境ファイナンス部門 社会インフラ部 第2・第3ユニット
特別参加	石 田 賢 ISHIDA MASARU	国士舘大学 客員教授
特別参加	小 西 正 秀 KONISHI MASAhide	コクヨ(株) 特別顧問
特別参加	小 針 進 KOHARI SUSUMU	静岡県立大学 教授
特別参加	長 久 光 OSA HISAMITSU	(公財)日韓文化交流基金 総務部長
特別参加	山 中 亜紀子 YAMANAKA AKIKO	(公財)日韓文化交流基金 青少年交流事業部

特別参加	峯 岸 博 MINEGISHI HIROSHI	日本経済新聞社 編集委員兼論説委員
特別参加	清 水 紘一郎 SHIMIZU KOICHIRO	(株)ホテルオークラ 社友
特別参加	澤 田 克 己 SAWADA KATSUMI	毎日新聞社 論説委員
特別参加	稲 垣 佐知也 INAGAKI SACHIYA	(株)矢野経済研究所 ソウル支社 支社長
特別参加	山 崎 弘 YAMAZAKI HIROSHI	元(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特別参加	大久保 匠 馬 OKUBO TAKUMA	Japan-Korea Students Future Forum 松竹(株)
特別参加	朝 田 航 太 ASADA KOHTA	Japan-Korea Students Future Forum 聖マリアンナ医科大学 2年
事務局	杉 山 茂 夫 SUGIYAMA SHIGEO	(一社)日韓経済協会 常務理事
事務局	千吉良 泰 三 CHIGIRA TAIZO	(一社)日韓経済協会 常務理事
事務局	前 田 一 郎 MAEDA ICHIRO	(一社)日韓経済協会 常務理事
事務局	伊 藤 美千代 ITO MICHIO	(一社)日韓経済協会 総務部長
事務局	金 侑 貞 KIM YUJUNG	(一社)日韓経済協会 担当部長 青少年交流センター長
事務局	内 田 敏 明 UCHIDA TOSHIAKI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常務理事
事務局	須 藤 俊 SUDO SHUN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事業開拓部長
事務局	杉 原 景 SUGIHARA KEI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担当部長 日韓中小企業情報交流センター長
事務局	小 林 ソンヨン KOBAYASHI SUNG-YEON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日韓中小企業情報交流センター
事務局	梶 山 智香子 KAJIYAMA CHIKAKO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総務部
事務局	伊 沢 雅 子 ISAWA MASAKO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総務部
事務局	新 井 尚 美 ARAI NAOMI	(株)日刊工業新聞社 総合事業局 イベント事業部

第52回 日 韓 経 済 人 会 議

THE 52ND JAPAN-KOREA BUSINESS CONFERENCE

2020. 11. 27 TOKYO, JAPAN

《ソウル会場》

(敬称略・順不同)

団 員 発表者	藤 吉 優 行 FUJIYOSHI YUKO	SEOUL JAPAN CLUB 理事長 韓国三菱商事(株) 代表理事社長
特別参加	高 根 和 正 TAKANE KAZUMASA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經濟部 参事官
団 員	長谷川 浩 二 HASEGAWA KOJI	韓国伊藤忠(株) 代表理事 社長
団 員	松 村 浩 MATSUMURA HIROSHI	ENEOS コリア(株) 代表理事社長
団 員	平 安 常 幸 HIRAYASU TSUNEYUKI	(公財)沖縄県産業振興公社 ソウル事務所 所長
団 員	渋 沢 泰 夫 SHIBUSAWA YASUO	韓国エプソン(株) 代表理事 社長
団 員	八 木 寿 史 YAGI HISASHI	(一財)自治体国際化協会ソウル事務所 所長
団 員	藤 井 亨 FUJII TORU	(株)商船三井 韓国 国代表
団 員	岡 田 卓 也 OKADA TAKUYA	韓国住友商事(株) 代表理事・社長
団 員	小 峰 研 一 OMINE KENTCHI	韓国双日(株) 代表理事 社長
団 員	渡 辺 知 用 WATANABE TOMOCHIKA	Sony Korea ADMK, Sales Div.2 Division Head
団 員	大 東 一 光 OHIGASHI KAZUMITSU	第一実業(株) ソウル支店 支店長
団 員	杉 浦 正 也 SUGIURA MASAYA	韓国豊田通商(株) 理事
団 員	黄 仁 雨 HWANG INWOO	東友ファインケム(株) 副会長
団 員	坂 庭 雅 史 SAKANIWA MASAFUMI	長崎県 ソウル事務所 所長

団員	栗原 宏和 KURIHARA HIROKAZU	日本航空㈱ 韓国支店 支店長
団員	橋爪 孝徳 HASHIZUME TAKANORI	日本商工会議所 ソウル事務所 所長
団員	三根 伸太郎 MINE SHINTARO	日本貿易振興機構 所長
団員	当間 正明 TOMA MASAOKI	経済産業省 参事
団員	楊 崇文 YANG SUNGMOON	野村ファイナンシャルインベストメント韓国 顧問
団員	金 哲永 KIM CHEOLYOUNG	㈱ビーコンコリア 代表理事社長
団員	大谷 徹 OTANI TORU	㈱韓国日立 代表理事 社長
団員	正富 竜一 MASATOMI RYUICHI	韓国丸紅㈱ 代表理事 社長
団員	頃安 俊郎 KOROYASU TOSHIRO	㈱みずほ銀行 ソウル支店 支店長
団員	海野 哲夫 UNNO TETSUO	三井住友海上火災保険㈱ 韓国支店長
団員	領木 一彦 RYOKI KAZUHIKO	㈱三井住友銀行ソウル支店 韓国代表・ソウル支店長
団員	森山 朋之 MORIYAMA TOMOYUKI	韓国三井物産㈱ 代表理事社長
団員	森原 康夫 MORIHARA YASUO	韓国三菱商事㈱ コーポレート本部 経営企画室長
団員	藤本 淳 FUJIMOTO JUN	㈱三菱UFJ銀行 ソウル支店長
団員	深山 清志 MIYAMA KIYOSHI	ロッテアサヒ酒類㈱ 代表理事

VI. 의 사 록



1. 개회식

사회 【우치다 토시아키(内田 敏明)
일한경제협회 상무이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를 열기에 앞서 사무국에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장은 사회적 거리를 의식해서 자리 배치를 하였습니다만 도쿄 회의장에서는 비말 방지 패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서울 회의장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휴식시간을 포함해서 밀접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혹시 컨디션이 안 좋아지시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주변에 있는 스태프에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곳 Okura 도쿄와 서울에 있는 JW MARRIOTT 호텔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진행하게 됩니다. 개최를 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중간에 통신장애 등의 문제가 생기거나 진행상에 사정으로 인해 회의 시간이 늦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의는 동시통역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자리에 있는 통역수신기 채널 1번이 일본어, 채널 2번이 한국어입니다. 미리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 혹은 알람이 울리는 시계 등 소리가 발생하는 기계를 갖고 계신 분께서는 전원을 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레나가 가즈오(是永 和夫)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도쿄 측에서 참석하신 여러분, 서울 측에서 참석하신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고레나가입니다. 개회에 앞서 사무국을 대표에서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일경제인협회는 지금까지 51차례 걸쳐서 단 한 번도 중단되는 일 없이 개최되어 왔습니다. 올해로 제52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인해서 당초 5월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만 오늘로 연기되었고 사회적 거리 확보를 위해서 회의 규모를 축소하였고 일정도 단축, 온라인 시스템으로 도쿄, 서울을 연결하는 등 여러 가지 고안을 통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며칠간 도쿄, 서울 양쪽에서 감염자가 확대되는 등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한일 양국 경제인 분들의 열의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간교류회를 이어갈 수 있음을 안도하면서 여러분의 지원과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 측에서는 김대하 주일한국기업연합회 대표를 비롯한 현재 일본에 주재하고 계신 한국 경제인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만나절이라는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미래지향적인 뜨거운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사회진행을 맡은 우치다 토시아키 상무이사를 소개하면서 마이크를 넘기고자 합니다.

사회 【우치다 토시아키(内田 敏明)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상무이사, 이하 동일

한일 양국의 단장님, 내빈 여러분, 기조강연 해주실 분들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는 정면에 큰 현수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래를 개척하는 한일협력 - 2020 SDGs 신시대 'After 코로나'를 창출하는, 신시대에 어울리는 한일연계를 구축을 주제로 개최를 하게 됩니다.

먼저 양국 단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측 단장인 일한경제협회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입니다. 서울 회의장에서는 한국 측 단장을 맡고 계시는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 김윤 회장님입니다.

내빈 분들을 주최국인 일본 측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1대 내각총리대신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님이십니다. 중의원 의원이자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계시는 누카가 후쿠시로 의원이십니다.

이어서 한국 측 내빈 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 회의장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박기영 통상차관보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도쿄회의장에는 남관표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끝으로 기조강연을 해주실 발표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스미토모화학의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님이시고 일한경제협회 부회장님이십니다. 서울 회의장에는 홍석현 한일비전포럼 대표이자

중앙홀딩스 회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양국 단장님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께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1) 단장인사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일본측 대표단 단장



산업통상자원부의 박기영 통상차관보님,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남관표 대사님, 한일경제협회 김윤 회장님 그리고 한국 측에 참석하신 여러분, 제91대 내각총리대신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님,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계시는 누카가 후쿠시로 의원님 그리고 일본 측 참석자 여러분 오늘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이토록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회의 일본 측을 대표해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지금까지 51년간에 걸쳐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개최되어 왔습니다. 그간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 하면서도 해마다 이어왔던 여러 선배님들의 열의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작년 9월 한국 서울에서 제51회 회의를 개최한 이후 전 세계를 둘러싼 정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례 없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기원함과 함께 감염된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매우 긴박한 의료현장의 제일선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계시는 양국의 의료종사자분들께도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편 이번 한일경제인회의는 당초 금년 5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습시다만 11월로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개최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의와 양국 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에 의해서 오늘 이렇게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민간교류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된 점에서 깊은 안도와 함께 개최를 가능하게 해주신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번 경제인회의는 특별한 방식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을 단축하고 회의장에서 사회적 거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한국 서울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에 계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이미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의의 주제로 저희가 삼은 SDGs는 지속가능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지향하는 국제적인 개발목표입니다.

그 중 하나인 건강과 복지에서는 감염병 대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보람과 경제 성장, 산업과 기술 혁신 나아가 교육, 빈곤이라는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극복하는

것 자체가 SDGs의 대응 바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화로 인해 전 세계가 광범위하게 서로 연결되는 가운데 리스크와 위기도 세계 전체에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회복을 위한 대응에서도 전 세계가 연계해서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 RCEP 동아시아 지역적 포괄적 경제 연계입니다만 이 RCEP에 일본, 한국을 비롯해 중국, 아세안 등 15개국이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 GDP와 무역의 규모에서 약 30%를 차지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이 출범하게 됩니다.

다자간이긴 합니다만 한국과 일본 간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자유무역추진과 투자확대 그리고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일양국 기업의 제3국에서의 협업을 보다 강력하게 지원하는 것으로써 환영하는 바입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교류의 지속, 확대를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일본기업에서 경험을 하는 인턴십 연수는 SJC(서울재팬클럽)의 협조 하에 올해도 일부를 제외하고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인턴십에 참가한 학생들로부터 “인턴이 아니라 회사의 일원으로서 대해주었다.” 또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될 것이다.”와 같은 소감이 오고 있습니다. 연수생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으며 나아가 한국과 일본의 미래에 가교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교류부분에서는 안타깝게도 한일고교생 교류캠프가 연기되었습니다만 캠프에 다녀온 OB, OG를 중심으로 온라인을 활용하여 새로운 교류를 모색하는 움직임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 면에서는 「한일축제한마당 2020 in TOKYO」가 온라인에서 라이브로 방송되었고 이를 많은 분께서 봐주셨습니다.

또한, 지역 간 교류에서는 「큐슈 · 한국 경제 협력회의」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등 인터넷 활용 등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또한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여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관계개선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저희 한일 · 일한 경제협회는 활동의 원점인 3가지 축 즉, 경제교류, 인적교류, 문화교류 이 세 가지에 충실 및 확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앞으로도 변치 않는 강력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 오후에만 진행되는 매우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서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유익한 회의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 인사 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 : 사사키 단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 측 단장을 맡고 계신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님께서 인사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서울회 의장의 김윤 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김 윤

한국측 대표단 단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윤입니다.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님, 누카가 후쿠시로 의원님, 박기영 통상차관보님,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님 그리고 양국의 기조연설을 해주실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님, 홍석현 회장님, 주제발표자와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감염확산으로 세계인 모두가 고통 받고 있는 시점에서 한일 양국 경제인들이 서울, 도쿄 간 화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양국 경제인 선배들이 반세기 넘도록 이어 오신 경제인회의를 한 번도 중단 없이 다시 미래를 열어가고자 우리가 모였습니다.

금번 회의 주제는 한일 간 문제해결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로 하였습니다. 최근 양국 정부 합의로 비즈니스 트랙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기업인 왕래를 위한 길을 열어주셔서 크게 환영하는 한편, 더 자유롭고 간결한 입국과 격리면제 그리고 김포-하네다 국제선 재개 등 양국 경제 협력에 필수적인 추가적 조치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일 양국 간 방역의 경험과 지혜들이 공유되어서 코로나를 더 빨리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협력이 절실합니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에 여러 모습의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교역, 투자, 인적 교류는 놀랍게도 증대되어 왔습니다. 2년 전에 정용 배상 판결과 주요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등으로 양국관계가 경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일 양국의 갈등해소 노력으로 양국 정부 간 대화와 소통의 움직임이 있음을 크게 환영하고 정경분리의 원칙으로 구체적인 진전이 있기를 고대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지역 활성화, 4차 산업혁명 등 해결해야만 하는 공통의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만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양국 경제인들이 그 선두에 서서 오늘 회의에 의미를 부여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 간 정치, 외교 갈등이 절대로 양국의 경제발전에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일본의 새 정부 탄생과 내년도 도쿄올림픽 그리고 세계적 코로나 위기 대응을 전환의 계기로 삼아서 함께 발전해야한다는 명제가 확인되어야 하며, 깊은 상호이해와 선의의 경쟁 그리고 최대한의 협력이 공영의 길이라는 양국 경제인의 인식과 갈망이 공동선언에 담겨지기를 기대합니다.

선대 기업인들이 남기신 공존공영의 토대를 우리가 물려받아 서있고, 우리 또한 미래 세대에게 짐을 넘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등 한일관계가 위기일수록 더욱 똘똘 뭉쳐서 난국을 타개합시다.

내년 서울 회의에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재회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주제 논의의 풍족한 결실을 기원하면서,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내빈인사

사회 : 김윤 단장님 감사합니다. 내빈 분들의 축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91대 내각총리대신을 역임하셨던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님께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후쿠다 야스오(福田 康夫)

제91대 내각총리대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회의를 개최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가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이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서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한일 양국의 경제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남관표 주일대사님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과거 51년에 걸쳐서 한 번도 중단된 적 없이 개최되어온 한일경제인회의가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매우 특별한 상황 속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개최를 하기 위해 노력하신 양국 관계자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일 양국은 가장 소중한 이웃국가로 정치, 외교, 경제, 인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심화해 왔으며 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는 양국에게 매우 중요한 무역상대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서로 바꿀 수 없는 무역 파트너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이며 가장 가까워야하는 양국은 원래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정치, 외교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국의 관계자분들께서는 이 사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분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때일수록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민간경제, 민간교류의 중요성을 더욱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내용 중 하나로 한일 양국기업에 있어서 제3국으로의 연계, 진출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최자인 한일·일한경제협회와 산업기술협력재단에서는 한일 고교생 교류캠프 등 풀뿌리 교류에 노력함과 함께 주한일본계 기업의 한국대학생의 인턴십 수용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비즈니스 면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국 간에 다양한 교류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회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류가 지속되고 발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일경제인회의에서도 소중한 이웃인

양국이 미래를 위해서 서로 상호이해를 심화해 나아갈 수 있는 지향점이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인 여러분 앞으로는 경제, 비즈니스, 문화 이를 축으로 하는 민간교류의 확대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를 마음으로부터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박기영 통상차관보님께 축사를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안녕하십니까? 김운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후쿠다 야스오 전 내각총리대신님,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님, 남관표 주일대사님과 오늘 행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도에 시작하여 한해도 빠짐없이 개최되고 있는 양국 경제인교류의 구심점이자 상징적인 행사입니다. 무엇보다도 금년행사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화상으로 개최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양국의 경제협력이 한일관계를 지탱해온 버팀목이었듯이 오늘 행사를 함께

해주고 계시는 양국 경제인 여러분의 역할을 높이 평가합니다.

존경하는 한일경제인 여러분 한국과 일본이 각각 세계 9위, 세계 4위의 교역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양국 산업 전반에 걸쳐 구축된 상호보완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가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협력기반을 바탕으로 양국은 서로에게 상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일본은 한국에게 제2위의 투자국으로서 현재 3,000개에 가까운 일본기업이 양국 가치사슬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일 경제인 여러분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세계경기의 위축, 한일 양국의 최대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비록 한일관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절실한 때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무역 등 국가시스템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시에 사회, 경제 전반에서 직면한 해결과제도 유사한 만큼 협력의 필요성과 효과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양국의 협력방안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최근 G20과 APEC정상회의에서 한일 양국을 비롯한 글로벌 정상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을 원활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력교류의 단절은 세계 공급망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달부터 기업인 신속통로제도를 도입하여 위축된 인적 교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역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인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야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다음 달 중에 대폭 확대하여 양국 기업인의 비즈니스 왕래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산업과 그린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확산은 우리 사회와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반도체, 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의 분업적 협력관계를 5G, AI 등의 디지털과 서비스 제조업이 결합하는 신산업 분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간 형성된 양국의 긴밀한 협력기반과 지리적으로 우수한 인적교류 여건을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로 나아가야합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파리협약 준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양국 기업인들에게 분명 커다란 도전요인이지만 새로운 기회요인이기도 합니다. 양국 정부가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수소 경제 등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과 공동해법을 모색한다면 신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양국의 협력범위를 보다 확대해 나가야합니다. 지난 11월 15일 8년간의 긴 여정 끝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인 RCEP이 15개 국가 간에 최종 서명되

었습니다.

이로써 아세안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거대한 단일 경제권역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RCEP의 출범에는 다양한 효과와 의미가 있습니다만 한일 양국이 참가하는 최초의 FTA라는 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일 양국은 양자 간 무역투자 확대와 더불어 아세안을 비롯한 역내 회원국에서도 보다 긴밀한 협력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 있어서도 RCEP를 활용하여 기존의 분업적 협력관계를 제3국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야합니다.

존경하는 한일경제인 여러분 오늘 행사는 코로나 공동극복을 위한 양국 경제인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와 더불어 한일 관계개선을 위한 제언과 청사진도 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속담에 좋은 치지 않으면 울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결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일 양국은 때때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가운데에서도 경제협력과 교류가 양국관계를 복원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왔듯이 앞으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협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같은 양국경제인 여러분의 의미 있는 교류는 한일 화합의 종으로 향하는 소중한 일부, 일부의 진전입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력의지로 화합의 종이 우렁차게 울려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정부도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양국 기업인 간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 : 박기영 통상차관보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한의원 연맹 회장님이신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의 인사말씀 듣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누카가 후쿠시로(額賀 福志郎)
일한의원연맹 회장**



소개받은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중의원 의원인 누카가 후쿠시로입니다.

일한의원연맹의 일본 측 의원은 여야당을 포함해서 300명의 수준입니다. 의원연맹 가운데에서는 최대 규모의 인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52회 한일 경제인 회의가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이 두 분의 리더십 하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성대하게 또, 엄숙하게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측에서 남관표 특명전권대사님께서도 참석해주셨습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는 각각 약 100명 정도의 경제인들이 온라인으로 이어져서 앞으로 적극적인 의견교환을 나눌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개최가 되기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한일 양국에 있어서 코로나 상황에

있습시다만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감염되신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료 관계자분들에 대해서도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저희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과 함께 구축해나갈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이고 기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제4차 한류 붐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 혹은 K팝 등 각종 여러 콘텐츠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각해의 유행이 되는 단어 여러 후보 중에 사랑의 불시착, 제4차 한류 붐이 인기 단어로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때 일본은 오부치 총리이셨죠. 한일 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파트너십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일관계를 출범시킨 것이 1999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류 붐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때 당시가 회고가 됩니다. 제 처도 그 사랑에 관련된 드라마라든지 정의가 실현되는 권선징악의 영화를 너무 좋아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와 같은 가요나 드라마 등 여러 교류를 하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우리와 달리 솔직하게 상대방의 특징을 인정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각각의 국가의 장점들을 인정하면서 상승효과로 서로 좋게 하자라는 분위기가 국민들 사이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정치 분야가 가장 뒤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11월 12일에는 한국에서 4월 국회의원 선거 이후 처음으로 한일의원연맹의 한국 측 김진표 회장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의

국회의원들이 오셨습니다.

정말 모처럼 오랜만에 한일 양국의 국회의원들이 솔직하게 흥금을 털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스가 총리님도 만났고요. 대화도 나누고 솔직한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그리고 의원연맹은 그와 같은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자는 이야기를 함께 서로 나누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은 이 의원연맹이 발족된 이후에 어떠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해도 대화의 통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곤란한 어려운 상황일 때야 말로 대화가 필요하다는 공통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내년에는 동경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이 개최되게 됩니다. 2018년에 평창올림픽 때 저희도 한국에 왔었습니다. 의원단으로서 평창올림픽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협력해서 분위기 업을 하자라고 노력한 것처럼 이번에도 한국 의원들과 함께 동경올림픽에서 서로 협력해서 성공 개최를 하고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 국민간의 관계 각 중 분야에서의 상호 이해와 상호협력 같은 것들을 구축해나가자, 이런 것들을 목표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저희는 한일 양국이 지금 아시아뿐 만이 아니라 세계에 있어서 리딩 국가로서, 선도국가로서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재구축을 하려면 확실하게 협력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통령도 트럼프대통령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현실화 되가는 그 길로 착실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제일국 주의에서 국제협조로 또한, 한나라만으로는 경제도 국제질서도 구

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국가인 한국과 미국과 동맹국인 우리가 함께 경제도, 국민교류도, 안전보장도 서로 긴밀히 연계하여 새롭고 자유롭게 열린 질서를 만들어나가는 협력관계이고 싶다.

이를 위해서 일본의 정권도 스가 정권으로 바뀌었지요.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과는 다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도 분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위에 서서 한일 양국의 경제인 여러분들께서 오늘 유익한 의견교환을 해주시고 새로운 한일 간의 경제협력 그리고 아시아의 더 많은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사회 : 누카가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 측 내빈으로서 남관표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남관표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존경하는 한일 경제인 여러분. 먼저, 한일 경제인 회의가 1969년 처음 개최된 이후에 한 회도 거르지 않고 개최되어 오늘 52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여건이지만 몇 배의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과 서울에서 참석하고 계신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일 관계 발전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대신님,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님,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님 그리고 도쿄와 서울에서 함께하고 계신 양국 경제인 모든 분께도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양국 간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두 가지의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15일 한국, 일본 등 15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된 RCEP은 한일 간에는 최초의 FTA로서, 양국 간 협력을 한 단계 높여 나가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가 양국 간 합의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여 절차상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기업인들의 출입국이 가능해 진 것은 또 하나의 진전입니다. 앞으로도 양국 기업인간의 비즈니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일 경제인 여러분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긴밀한 공급망을 형성하고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작년 하반기 이후 한일 경제관계는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려와 걱정이 매우 클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양국 국민과 기업에게 어려움과 손해만 초래

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고위급 인사가 잇따라 일본을 방문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양국관계는 늘 부침이 있었지만 양국 경제인들께서 오랜 세월 쌓아 오신 신뢰와 우정은 양국 관계를 이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한일경제인회의는 항상 그 구심점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류와 대화는 우리 양국이 직면한 도전을 슬기롭게 넘어서고 아울러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만남을 계기로 여러분의 우의가 더욱 돈독해지고 협력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남관표 대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념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과 내빈, 강연자 분들께서는 무대 위에 올라와주시길 바랍니다. 스태프 분들은 무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뒤에 나오는 영상으로 기념사진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소 부탁드립니다.

【서석승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서울 회의장에 계신 여러분 촬영하는 화면에 기자분들의 모습이 찍히네요. 지금은 잘 보이시나요? 일본측 어떠십니까? 그러면 사진을 찍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카메라 관계자분이 나오십니다. 잠시 뒤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사진 한장 찍고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비키겠습니다. 이제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 사진 부탁드립니다. 다들 너무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미소를 부탁드립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 퇴장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여러분 박수와 함께 환송을 부탁드립니다.

2. 기조강연

사회 : 기조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측에서는 스미토모화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회장을 맡고 계시는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님께 강연을 부탁드립니다. 도쿠라 회장님이 계시는 스미토모화학은 석유화학, 에너지, 기능성 소재, 정보 전자 화학, 건강, 농업 관련 사업, 의약품과 같은 분야에 걸쳐서 폭넓은 산업과 사람들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제품을 글로벌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과 지역공헌 등에 대해서도 일찌감치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도쿠라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도쿠라 마사카즈(十倉 雅和)
스미토모화학(주) 회장



지금 소개받은 스미토모화학의 도쿠라입니다. 오늘 한일 양국 경제교류를 대표하는 여러분께서 참석해주신 가운데 그 앞에서 기조강연을 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문제가 수습이 되고 있지 않은 지금 현재 상황의 속에서도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올해도 개최가 되었습니다. 사사키 회장님 그리고 김윤 회장님을 비롯해서 한일 양국 관계자 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코로나 문제에 대표되듯 커다란 움직임 속에 있는 세계의 현황과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의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계 현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OVID-19와 관련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구미에서는 감염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 누계로 6,000만 명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새롭게 감염된 사람이 전국에서 하루 2,000명이 넘고 있고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지난 보도에서 본 바와 같이 백신도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경제인회의가 이와 같은 형태로 열리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확보, 마스크착용, 손 씻기 등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래를 내다봤을 때 백신이나 치료약 개발이 추진이 되면 물론 낙관만을 할 수 없지만 이 코로나는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요. 이 코로나19는 단순히 감염증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첨예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의 대처리즘,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의 진정과 함께 시대를 석권했고요. 철저한 신자유주의는 격차를 끌어내고 또, 온난화 등 생태계를 파괴시켜 왔습니다. 또한, 생태계파괴의 한 예인데요. 이것이 바로 코로나죠. 코로나가 이러한 격차들과 문제들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차의 확대는 각국 레벨에서 봤을 때는 빈곤층과 부유층이 분단이 되고 또한, 세대 간의 분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레벨로는 생태계가 파괴되고 리스크가 높아지고 미중 대립이 더욱 강화되고 하이테크 분야의 대립에서 이제는 이데올로기의 대립까지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지만 이 트렌드는 단기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미국의 격차확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The World Inequality Database 라는 오픈 데이터에서 저희가 정리한 것인데요. 21세기의 여러 자본과 관련해서 연구한 연구자들이 관여를 해서 이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주황색을 보면 Top 1% 자산점유율, 파란색은 Top 1%의 소득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1980년대 이후 격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Top 1%의 사람들이 소득의 20%를 차지하고, 자산 점유율에서는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됩니다. 보시는 자료는 세계 가치관 조사이고 100개의 국가와 지역, 18세 이상 그리고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인데요.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에서의 민주주의의 중요도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10단계로 나눠서 조사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Absolutely important 라고 대답한 사람은 위에서부터 보시면요. 맨 위에 있지요. 1990대 미국사람들 즉, 20대들이지요. 이분들이 1950년대에 태어난 60대에 비해서 절대 중요하다는 비율이 약 30%이지요. 즉, 60대에 비해서 반 이하라는 아주 쇼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Post-truth이라고 불리는 현재, 저는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당연한 것으로 아는 세대로 태어났지만 반드시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이터가 나온 것을 보고 굉장히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위기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세계 인구의 역사적인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20세기 이후의 세계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조금 글자가 작아서 보기 어렵지만 예전에는 20억이었는데 현재는 70억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약 100억 명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당연히 그 기간 동안 경제성장과 함께 지구 온난화 등의 외부불경제요소가 발생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세계의 지속성이 위기에 처하는 것은 필연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 인구는 유엔에 따르면 2,100년 정도에는 거의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직시하고 세계의 지속성을 중시해서

이런 과제들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운데 다행히 세계에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주제도 있듯이 SDGs, ESG투자,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파리협정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주가치를 내세웠던 미국에서 미국단체인 Business Roundtable이 shareholder Value(주주가치)에서 Stakeholder Value(이해관계자 가치)로 그 주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다보스포럼에서도 Stakeholder capitalism이 주제가 되는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글로벌한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바이든 씨가 당선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본질적인 위기의 확대는 겨우 면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바이든 씨는 승리연설에서 분단이 아니라 결속을 다지자, 자국 제일주의가 아니라 국제협조를 추진한다고 주장했구요. 인종차별 근절, 환경 보호를 주장했습니다. 그와 같은 메시지를 발신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SDGs의 컨셉과 같은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일본에서도 기존부터 정부나 Society 5.0이라는 컨셉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이 Society 5.0은 이노베이션에 의한 과제 해결, 가치 창조를 추구 하는 컨셉입니다. 지속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디지털 혁신과 다양성을 융합하여 이노베이션을 일으키고 사회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나가는 것, 현 세계에서 Sustainability, Diversity, Inclusion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컨셉인 Society 5.0의 컨셉을 일본이 내걸고 있는 데요. 이것은 아주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스미토모화학에게도 Sustainability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의 활동내용을 소개하겠는데요. 그전에 사업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스미토모화학은 아까 소개도 해주셨지만 세계의 커다란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석유 화학인 벌크케미컬, 에너지/기능성소재 즉, 고기능소재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농업관련, 의약품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동우화인켐이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전자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약 30년 전에 1991년 반도체 제조용 고순도 약품부터 시작했구요. 그 이후 한국의 반도체 사업, LCD산업의 성장배경으로 신규제품이나 사업을 확대해서 비약적으로 성장을 한 회사입니다.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한국에서의 누적투자액은 3조원을 넘어섰고요. 매출액도 3조원을 넘었고 3천명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트리플3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페이지에 스미토모화학의 사업정신을 표시했습니다. 스미토모화학이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스미토모의 사업정신입니다. 스미토모화학이 아니라고요. 저희 스미토모 그룹에서는 ‘자리이타 공사일여(自利利他公私一如)’라는 정신이 있습니다. 스미토모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스미토모 사업은 스미토모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지역 사회,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스미토모화학의 사업발상

즉,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기간산업인 동제련시에 발생하는 유해 아황산가스가 있었는데 환경문제를 극복하고 농산물을 증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스미토모 화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상도 좋고 판매자도 좋고 제조자도 좋다는 말이 일본에 있습니다만 사회과제의 해결과 경제성장을 양립시키고자 하는 생각은 많은 다른 일본기업들도 같이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스미토모의 사업 정신 ‘자리이타 공사일여’이라는 말을 표로 나타낸 것인데요.

가로축을 보면 자리 축, 세로축은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이타 축이 있습니다.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자리 축과 사회가치 창출을 하는 이타 축을 실현시킴으로써 기업가치의 향상을 도모하고 이것이 저희 사업정신을 나타내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념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것의 예로 Olyset Net이라는 사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NHK의 TV방송 ‘역전인생’에서 소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Olyset Net 말라리아 매개 모기를 막고 말라리아 감염병을 예방하는 모기장입니다.

Olyset Net은 모기로부터 몸을 지키고 모기약에 사용되는 페리메트린이 서서히 나와서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모기장입니다. 세계 최초로 효과가 지속적인 방충모기장 LLIN(Long Lasting Insecticidal Nets)으로서 WHO로부터 추천을 받았고요. 오랜 기간 동안 말라리아를 예방하는 도구로써 평가받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매개 모기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이 모

기장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NHK 방송에서도 소개가 되었는데요. 2005년 다보스회의에서 할리우드 여배우인 샤론스톤이 일어나서 일본의 제품을 사기위해 기부금을 모금한다고 해서 그날 하루만에 100만 불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2003년 탄자니아의 현지기업에 무상으로 기술을 나누어주었고요. Olyset Net은 지금 현재 80개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사망자 수는 현재 40만 명으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과거 10년 간 절반 수준으로 감염자 수 즉,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탄자니아에서는 최대로 많은 사람들의 고용이 창출이 되었고 그 중 80%가 여성취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성사회 진출이라는 사회과제에도 공헌을 하였습니다.

또한, 매출 일부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12개 국가에 학교를 짓고, 급식시설 등 28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받은 사람들은 누적으로 했을 때 21,000명 이상에 달합니다. 이와 같이 Olyset Net의 사업을 통해서 감염병 대책, 고용과 성평등, 교육지원 등 사회 과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데 공헌해왔습니다.

이어서 한일 양국 기업이 지향해야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한일양국은 민주주의, 자유, 법의 지배, 시장경제와 같은 공통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부족한 자원, 환경, 에너지 문제 등 공통의 과제 또한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는 자유민주주의 지수를 나타내는 자료

인데요. 이 지수는 민주주의를 나타내기 위한 표입니다. Liberal Democracy Index라고 하는데요. 이 조사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이 어디까지 달성되었는지를 지수화 한 것입니다. 시민의 자유, 법의 지배, 사법제도, 행정권 행사, 선거제도 등을 고려해서 지수화 한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은 0.7 이상으로 2019년 숫자에서 일본은 0.74, 한국은 0.78, 미국은 0.7 트럼프 이전에는 0.8이상 이었는데 말이죠. 중국은 0.05였습니다.

이 조사는 오랜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스웨덴 대학에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세계의 200개 국가, 3,000명의 전문가 연구자가 협력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세계분단이 지금 외쳐지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것은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지만 한국과 일본뿐이 지수가 높습니다.

세계 분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한일이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귀중한 인국이라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RCEP의 서명을 해서 협정이 발효가 되었는데요. 한일 양국 뿐 만 아니라 앞으로 자유롭고 널리 열린 국제질서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세계의 분단 그 다음에 생태계의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앞으로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국제협조와 지속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뜻, 그 마음에는 정의와 공정성이 있어야하고 from the Social Point of View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from the Social Point of View는 일본의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우자와 히로후미 선생님께서 40년 전에 제창하신 생각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SDGs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회성, 정의, 공정 등 이와 같은 시점이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 서서 한일 관계를 생각해 보면 공통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제공조의 기초가 되고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의 구체화에 직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는 것은 조속히 우리가 실시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일 간의 협력관계의 토대에 있는 것은 앞서 누카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일 파트너십선언이 그 근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1998년 10월 국민으로서 일본을 방문하신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 간의 서명입니다. 두 정상 간 공유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21세기를 향해서 정치, 안전보장, 경제 및 인적, 문화교류를 포함해서 폭넓은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상 간의 상호방문의 정기화, 고위급 간담회 조기 개최 등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국 국내에서 규제를 하고 있었던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을 표명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2년에는 축구 월드컵을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미래지향과 한일 신시대가 강조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한일파트너십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심포지엄이 호텔 오쿠라에서 개최되었고요. 저도 경단련을 대표해서 참가를 한 바 있습니다.

반복이 되지만 한일 관계의 기초가 된 것은 이

미래지향을 내건 한일 파트너십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단련에서는 Society 5.0라는 컨셉에 대해서 미래는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일 양국 기업들은 서로 협력해서 이노베이션을 일으키고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이 말하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에 공헌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義’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의의 ‘의’입니다. 한국말로 의라고 발음을 하겠지요. 한국에서도 정의라는 뜻으로 오래전부터 중요시하는 개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정의나 공정과 같은 개념이 또, 그런 관점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한일 양국의 기업들은 정의, 공정의 관점에서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SDGs의 실현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감염확대라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양국의 기업들이 SDGs의 실현을 위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협력해나가는 장으로써 앞으로도 더 많은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 : 도쿠라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 측 부탁드립니다. 서울 회의장에 계신 한일경제협회의 서석승 부회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석승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한일경제협회 서석승입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아마도 휴식시간 조정이 조금 필요해보입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본의 회의장과 한국 회의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가 희망자가 계셨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 때문에 더 많은 분을 모시지 못하고 있음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국 측 기조연설자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홍석현 회장님께서 세계 신문협회 회장, 주미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를 역임하셨고 재단법인 한반도 평화만들기 이사장 그리고 수년전부터 한일비전포럼을 이끌어 오시면서 건전한 한일관계에 대한 깊은 고민과 청사진을 연구해오셨습니다. 그런 만큼 선두에 서서 고생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런 고견이 오늘 귀한 말씀으로 담겨서 전달될 것을 희망합니다. 그러면 홍석현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홍석현

한일비전포럼 대표 / 중앙홀딩스 회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딱 막힌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써오신 한일 양국의 지도자 여러분들과 오늘 뜻 깊은 자리를 갖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님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스미토모화학 회장, 유명환 전 외무부장관, 남관표 주일 대사, 박기영 산업자원부 통상차관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상그룹 회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일본의 지성 오키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양국의 성취를 쌍둥이 국가로 표현했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UCLA 교수도 저서 ‘총·균·쇠’에서 두 나라를 “같은 피를 나누었고, 성장기를 함께 보낸 일란성 쌍둥이 형제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동아시아의 미래는 양국이 고대에 쌓았던 유대를 성공적으로 재발견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백제 문화를 바탕으로 일본 고대문화를 꽃피운 아스카 시대, 전쟁으로 단절된 교류를 조선통신사를 통해 복원한 에도시대는 한일 양국이 협력했던 빛나는 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양국은

2,500년 동안 서로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각자의 문명을 향상시켰고, 특히 1965년 이후에는 역사상 최고의 상호이익을 실현했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의 지배, 인권 존중, 환경,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단 둘 뿐인 OECD국가입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했고, 한때 미국의 지위에 도전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었고, 지금도 3조 달러의 순자산을 가진 세계 최대의 순채권 국가입니다.

한국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동아시아 최고의 문명국가였고, 전후 유일하게 개도국에서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를 동시에 가졌고, BTS를 탄생시킨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은 외교·과거사·경제·안보의 모든 영역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상호의존성의 무기화(weaponization of interdependency)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두 문명국가의 수치입니다. 여기서 단 하나의 갈등 요인이라도 추가된다면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는 국경선에서 멈춰야 합니다. 다행히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는 실용적 현실주의자라고 들었습니다. 한일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악화된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일협정 60주년인 2025년을 목표로 양국이 지금부터 역사화해 프로세스에 돌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국과 식민지의 역사화해는 서양에서도 이루지 못한 난제라는 사실을 잘 알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상대로부터 배웠던 문명의 콘텐츠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알리는 작업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과거사 해결은 역사 문제를 직접 다룸으로써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공유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입니다. 미래가 과거를 정리한다는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양국이 성숙한 관계에 돌입한다면 두 나라가 중심이 되고 중국까지 포함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유럽은 30년 전쟁의 산물인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큰 흐름에서는 현재의 협력 체제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진화의 경로를 밟아 왔습니다. 우리도 아시아 특유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뛰어난 문명의 힘으로 유럽이 부러워할 정도의 아시아 평화 경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역대 일본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1995년 자민당 사회당 연립정권의 무라야마 총리가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담화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습니다. 3년 뒤인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파트너십선언은 이를 계승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담긴 최초의 공식 합의 문서입니다.

강제 병합 100년이 된 2010년에는 민주당 정권의 간 나오토 총리가 한반도만을 특정해 반성 사죄를 표명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3년 고노 관방장관이 담화에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고, 이는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광복 70주년인 2015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패전국은 피해를 입힌 분들에 대해서 그들이 더 이상 사죄할 필요가 없다고 할 때까지 사죄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무한 책임론을 언급했습니다. 식민지배가 부당했다는 인식이 일본 사회에 자리 잡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에 대해서 평가할 것은 평가하고 넘어가는 아량과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전후 일본은 평화헌법을 기반으로 세계평화와 번영에 앞장서왔고, 한국 경제 발전에 힘이 되어준 존재라는 인식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양국이 역사 화해에 도달한다면 유럽 버전의 역사 화해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유럽의 역사 화해와는 달리 제국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 피해 국가에 사과와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1919년 3월1일 독립선언서에서조차 일본을 배타적 감정으로 단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양평화와 세계평화에 함께 나서자고 했습니다. 일본과 싸웠던 김구 선생은 해방이 되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친일파라면, 없으면 만들기라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중국을 만든 덩샤오핑의 지혜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중국 개방 개혁 원년인 1978년 일본을 방문했을 때 기자회견에서 센카쿠열도 즉,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양국 분쟁을 질문받자 “지금의 중일 지도층보다 더 지혜로울 다음 세대에 이 문제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덩샤오핑 방문 이후 30년 가까이 대 중국 원조프로그램을 가동해 수백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중국은 이 돈으로 베이징과 상하이에 공항을 짓고 지하철과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당시 나카소네 총리는 일본 재정이 빠듯했지만 원조

액수를 늘리자고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는 “전쟁 때 큰 고난을 일으킨 것에 유감을 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덩샤오핑은 “일본과 중국의 친교역사는 21세기에도, 22세기, 23세기, 43세기에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선진국 최초로 광대한 중국 시장에 접근하기를 원했고, 중국은 일본의 자본력과 기술이 필요했기에 통 크게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한일 양국 지도자들이 배워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미 한 세기 전 아시아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근대화를 이룩한 저력이 있는 이웃 나라입니다. 일본을 문명국이자 경제 안보의 파트너로 대우하면 현재의 갈등은 어렵지 않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과거에 머무른 자는 한 눈을 잃고, 과거를 잊은 자는 두 눈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러시아 속담이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되 역사의 노예가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이 의장국인 한중일 정상회의가 올 연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7월에는 도쿄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중대한 전기입니다.

스가 총리 취임 이후 양국 정상회담의 만남과 결단을 통해 관계 복원을 추진하려는 메신저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현해탄을 넘었습니다. 양국 모두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관건은 실제적 조치와 행동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한일관계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정치인입니다. 부통령 시절인 2013년에는 한일 양국을 방문했습니다. 아베 총리에게는 역사논란을 일으키

지 말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일본과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떨어진 부부를 다시 이어주는 이혼상담사 같았다고 회고했습니다.

바이든 시대의 미국을 맞아 한·미·일 삼각협력체제의 복원은 이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우선 초미의 관심사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에 따른 일본기업 압류자산 현금화를 그 전까지 막아야 합니다. 스가 총리는 현금화 중단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중일 정상회담에 불참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사법절차에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특별입법 절차를 통해 일본에 퇴로를 열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현실적인 수순입니다. 일본은 경제 보복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을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기업 압류재산의 현금화는 일본기업의 즉시항고·재항고 절차, 감정 절차, 시장에서의 실제 매각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이 우려하는 총리 방한 이후 현금화가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려있는 지금 한일 양국 지도자들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양국 관계가 어려울 때 일수록 정상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타협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저는 양국의 지도자들에게 통 큰 타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조치를 취하자고 했습니다. “일본이

곤란해 하면 굳이 받지 않겠다.”라고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것이지만 국제법적인 약속인 한일협정과 충돌하는 만큼 더이상 일본을 압박하지 말고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이 결단하면 일본에 끌려 다니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로 난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은 전향적 용의를 밝힘으로써 단번에 도덕적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과거 두 차례 배상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국회에서 특별입법을 통해 세 번째의 배상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친일시비로부터 자유롭고, 민주화 운동의 정통성을 가진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결단을 내릴 자격과 여유가 있습니다. 대신 일본 정부는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강제징용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대상으로 솔직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던 2010년 간 나오토 총리 담화를 기반으로 하고, 김대중-오부치 한일파트너십선언처럼 양국 정부 간 합의의 형태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스가 총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중일 정상 회담이 성사되고 이 기간 중 한일 양자 정상 회담이 열려 양국 관계에 돌파구가 생기길 기대합니다.

두 나라의 관계가 개선되면 당장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방역협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럽처럼 동북아에서도 전력 슈퍼그리드를 구축하는 일도 한일 두 나라가 손을 잡으면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유럽은 전력을 이미 모든 국가가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은 양국 국민 모두가 상호협력의 생산적 결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메가 프로젝트(Mega Project)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한일비전포럼의 멤버인 LS 구자열 회장의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유럽통합의 첫걸음이 석탄과 철강 공동체를 만든 데에서 시작됐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모두 자원빈국이며 해외의존도가 높습니다. 두 나라가 손잡고 해외로부터의 개발과 수입을 공동으로 할 경우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양국이 비교우위 분야를 결합해 합리적인 분업으로 대처하면 해외인프라 수주 경쟁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일FTA 체결도 급진전될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한일관계를 비정치적인 경제통상 분야 협력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양국은 신성장 동력 분야인 4차 산업에서 체계적인 협력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SK반도체는 일본 도시바 반도체에 투자하고, 한국의 일본 내 투자기업인 네이버 라인이 일본의 야후 재팬과 손을 잡았습니다.

양국은 에너지 다소비국가입니다. 에너지·기후변화·녹색성장에서 협력이 가능합니다. 표준화와 특허 분야에서도 북미·유럽과의 경쟁에서 힘을 합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양국이 함께 겪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 사회에 대한 공동대응도 절실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일본과 이제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가는 한국이 협력한다면 제약, 의료 기기,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고령자 지원서비스사업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두 나라가 실버산업을 키우면 10년 안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중국 등의 나라를 상대로 큰 규모의 비즈니스를 펼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세계 3위와 11위의 경제 강국입니다. 상호의존도가 높은 두 나라는 글로벌 밸류체인이 원활하게 작용되도록 해서 세계 경제를 견인해야 할 공동의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국의 산업구조는 수직적 협력체계에서 어느덧 수평적 경쟁구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특성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win-win의 수평적 협력체제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2002년 한일공동월드컵 때처럼 내년 도쿄 올림픽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한국이 일본과 협력적 관계를 복원할 때, 미국과의 관계를 증진할 수 있고 중국으로부터도 더 공정한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 미국, 중국의 존중을 받는다면 북한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과 프랑스는 1963년 아데나워 수상과 드골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엘리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 큰 전쟁을 했던 두 나라는 지속적으로 인적교류가 확대됐고 관계도 극적으로 개선됐습니다. 두 나라는 유럽 통합의 쌍두마차로 선두에 섰고, 이는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한일 간 연간 1,000만 명 교류의 시대입니다.

한일 두 나라도 아시아판 엘리제 조약을 체결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북일 국교정상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마침 스가 총리는 최근 북한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도울 의사가 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에 동참하는 것은 양국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수백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일청구권 자금은 북한이 개방됐을 때 경제 개발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한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 수요는 돌파구가 필요한 일본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을 북한 변화의 촉매제로 끌어들이 수 있게 됩니다. 두 나라가 손을 잡아야 할 이유는 이렇게 차고도 넘칩니다.

여러분, 도고 시게노리는 태평양 전쟁 개전과 패전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고, 도쿄 재판에서 A급 전범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 사망했습니다. 그는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간 조선 도공의 후예입니다. 그의 손자인 도고 가즈히코 교토 산업대 교수는 외무성 조약국장과 네덜란드 대사를 지낸 외교관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일본 스스로 타자의 고통을 느끼고 타자의 괴로움을 이해하는 겸허함 위에 서는 것이다. 겸허함의 좁은 문으로 일본인이 들어간다면, 일본의 고통도 반드시 타자로부터 이해받을 것이다. 타자의 심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정의를 자랑하는 오만은 지금 일본에게는 광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울림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일본이 우려

하는 1965년 한일협정 체제의 동요를 막기 위해 우리 한일비전 포럼을 통해 민간 차원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유사시 한국 안보의 배후역할을 하는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 방문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방위를 위해 일본은 국외자가 아닌 안보의 안전편임을 실증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한일비전포럼의 유엔사 후방기지 방문은 한일 양국과 미국의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상징적인 행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평가 절하된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도록 여론을 환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일 양국은 동양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 근대화에 성공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특별하고 위대한 이웃인 두 나라가 손을 잡으면 서구 위주 세계 질서의 위기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출신 아방가르드 예술가인 오노 요코는 “홀로 꾸는 꿈은 그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나라가 아시아 평화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 꾸는 꿈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현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가장 중요한 미션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 : 홍석현 회장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잠시 커피 브레이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커피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또한, 5분정도 쉼 후 3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화장실 등을 이용하신 후 가능하면 빨리 자리에 돌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러면 커피브레이크를 가지겠습니다.

3. 전체회의

사회 :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체 회의로 오늘 열리는 경제인회의의 개최 주제인 미래를 개척하는 한일협력 - 2020 SDGs 신시대 ‘After 코로나’를 창출하는, 신시대에 어울리는 한일연계 구축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디네이터와 발표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하겠사오니 그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길 바랍니다.

코디네이터는 NRI 사회정보시스템 주식회사의 전 사장인 다카다 노부아키 시니어컨설턴트입니다. 다카다 시니어컨설턴트는 한일경제인 회의에 앞서 논점을 정리하기 위해 개최를 하고 있는 신산업무역회의에서 일본 측 코디네이터를 맡고 계십니다. 한일 교류에 있어서 깊은 이해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일본 측 발표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반사단법인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인 주식회사 일간공업신문사의 이미즈 하루히로 대표이사 사장님이십니다. 일간공업신문사가 발행하는 일간공업신문은 일본을 대표하는 산업지로 이미즈 사장님은 한일일한 산업기술협력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3국 진출 사업의 방문단에 제1회부터 5회까지 모두 참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제3국에 있어서 한일기업의 연계와 현지 공헌』의 주제로 발표를 하실 계획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본에서 두 번째로 발표하실 분은 서울회의장에 계신 SJC 서울재팬클럽 이사장이신 한국 미쓰비시

상사 대표이사사장을 맡고 계시는 후지요시 유우코우 사장님이십니다. 현재 주한일본계 기업들은 양국의 외교 관계와 더불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한국 내 일본기업 상황 및 향후 기대』에 대한 주제로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를 해주실 계획입니다.

이어서 한국 측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제이캠퍼스 정구현 대표 연구원입니다. 정구현 대표연구원은 삼성경제연구소를 거쳐서 2018년 제이캠퍼스를 설립하고 현대 경제와 비즈니스 이슈 등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태와 GVC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하실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두 번째 발표자 분은 현대자동차의 박순찬 상무님이시며 연료전지사업실장이십니다.

박순찬 실장님은 현대자동차의 연료전지사업을 총괄하고 계시며 국내외에서 수소에너지와 수소자동차의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활약 중이십니다. 오늘 『수소사회 도래와 비전 2030』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실 계획입니다.

발표를 함에 있어서 나중에 다카다 코디네이터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 한 분당 15분의 발표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금 길어질 경우에는 알림을 하도록 할 테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의 진행을 다카다 코디네이터에게 부탁드립니다. 다카다 시니어컨설턴트 잘 부탁드립니다.

좌장 : 다카다 노부아끼(高田 伸朗, NRI사회 정보시스템(주) 시니어 컨설턴트



안녕하십니까? 다카다입니다. 지금부터의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간단하게 운영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지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한 명당 15분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발표는 일본-한국-일본-한국의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발표가 끝나면 의견 교환을 하고 회의장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께 질문과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일본 측 주식회사 일간공업신문사의 이미지 하루히로 대표이사 사장님께 『제3국에서 한일기업의 연계 및 현지 공헌』의 주제에 대해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이미지 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미즈 하루히로(井水 治博)
(주)일간공업신문 사장 ·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방금 소개받은 일한경제협회 부회장과 일간
공업신문의 사장을 맡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번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아직 수습되지 않은 가운데
개최가 되었습니다. 우선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해 한일 양국의 돌아가신
분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또한, 환자
그리고 그 가족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일 양국뿐 만아니라 신종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이대로 수습이
길어지고 세계경제가 침체가 되면 기업은 막
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서비스업 뿐 만이
아닙니다. 제조기업에 있어서도 생산거점의
재검토와 공급망의 재구축을 포함해서 큰 변
혁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저희 공업신문사는 산업정보를 널리 발신하는
보도기관입니다. 창간한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창간 이래 계속해서 산업계의 나침반이고 싶은
그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약 100년 전에는 세계대공황과 관동대지진,
제2차 세계대전, 동일본대지진, 석유위기, 버
블붕괴, 리만쇼크 등 기업들은 이런 위기를
이겨내고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발휘하면서
성장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런 풍랑을 견디고
격동의 시대를 극복해온 기업들의 대처방법
에는 다른 많은 기업들이 향후 본연의 자세를
모색하는데 참고할 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보도를 할 수 있게 힘
쓰고 있습니다.

100년에 한번 있는 위기라고 하는 이 신종코로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신문뿐만이 아니라
전시회, 세미나 등을 통해서 다방면에 걸치는

사업을 융합해서 산업정보의 플랫폼으로서
기업성장과 산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부터 계속해서 상호간
개최가 되어 왔습니다. 한일관계가 악화가 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개최가 연기되
어서 한때 개최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여러 관계자분들의 많은 협력
으로 인해서 무사히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또 오늘의 회의로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일 양국은 제3국 시장에서의 자원개발이나
제조업에서의 수평분업체제 등 경제면에서의
공통이익이 적지 않습니다. 그 관점에서도 산
업계는 앞으로도 관계의 심화를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일 경제인이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양국에만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제3국에서의 자원개발이나 인프라 정비
등에서 양국은 서로의 강점을 살려 산업 네
트워크를 넓혀간다면 아시아와 세계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한경
제협회에서는 지금까지 제3국 경제연계를 목
적으로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미션을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저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몽골, 베트남 각각의 미션에 참가하였습니다.

그 몇몇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3년
1월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습니다. 일본은
물류건설상사, 제조업, 신문사 등에서 27명이
참석하셨고 한국에서는 에너지, 가스 회사,
제조업 등에서 15명 즉, 총 42명이 참가하였
습니다.

인도네시아 슬라웨시 섬에서는 액화천연가스
LNG의 개발사업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동기-세노로라고 불리는 프로젝트는 한일의 협력사례로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이 그 섬의 가스전의 사업화를 추진했고 그 파트너로 미쓰비시상사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삼사가 동기-세노로 LNG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세계에서 최대 LNG 수요자인 한국가스공사 이죠? 이 삼사가 출자를 하였고요. 현지회사와 한국, 일본이 협력하여 이 사업에 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인데 아무런 산업이 없는 곳이었는데요. 즉, 어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시골이라는 느낌을 받는 곳인데 그곳에서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었고 커다란 가스탱크가 건설이 되는 현장은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멋진 일이 펼쳐질 것이라라는 예감을 느낄 수 있었고 인상을 받았습니다.

2014년 2월에는 제 3국 전개미션이 있었고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사업으로 미얀마를 시찰했습니다. 일본 측에서 29명, 한국 측에서 19명이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규모 미션이 있었습니다.

미얀마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것은 경제특구인데요. 개발단계에서부터 일본대형회사들의 연합 등이 참가한 양국 경제단지 협력사례인데요. 일본 돛의 500배 정도의 규모에 달하는 넓이로 500 헥타르 이상이 지금 개업을 하고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도요타, 스즈키 등이 진출을 하였습니다. 도요타의 티어1, 티어2 기업도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요. 이와 같은 상황인데 굉장히 이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업의 전력공급을 하고 계신 곳이 한국의 화력발전소이며 이 공단 근처에 건설이 되고 있었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건설 도중이었는데 한일이 협력해서 에너지 분야 사업에 같이 들어가고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은 일본 상사가 중심이 되고, 전력 공급 쪽은 한국이 중심이 되었고요.

한국 측에서는 부산의 바이오테크놀로지, 현대 엔지니어링 등이 한국 측에서 연합으로 구성을 해서 수주하였습니다. 특히 미얀마에서는 전력공급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양곤에서 약 40분정도에 있는 공업단지도 가본 적이 있는데 이 부근의 기업들도 한번 다 같이 시찰하고 둘러봤는데요. 전력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이 제조업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로 되어 있어서 그런 상황을 파악해서 이번 공업단지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안정된 전력공급과 공업단지 확대라는 것이 잘 추진되었던 사례였습니다.

시간이 되었네요. 중 치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요. 다음에는 어디를 계획하고 있냐면 말레이시아를 계획 중입니다. 내년 제6회 한일 제삼국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말레이시아 미션을 계획 중입니다.

현지에 에너지 개발사업 등의 시찰과 심포지엄을 통해서 사업 성공요인을 추출한다는 것입니다. 한일협력에 의해서 사회 산업 경제 인프라의 정비사례를 널리 알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은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신남방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말레이시아나 태국 등과의 협력분야 발굴 확대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도 말레이시아와 무역이 견고하고 양호한 통상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도요타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미 한일 협력사례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특히 에너지 분야에 관련해서는 일본기업의 노하우, 실적과 한국기업의 시공기술을 조합한 프로젝트가 전개가 되고 있고요. 성공사례의 연구를 위해서도 말레이시아가 안성맞춤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말레이시아의 미션에서는 네그리 썸비란 주의 초초임계압 석탄 화력발전소나 조호르주 말레이시아 최대급 석유정제, 석유화학 콤플렉스 사업 등을 시찰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는 IHI, 도시바, 한국의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참여하였고요. 후자는 니키, 도요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등 한국과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시찰미션을 계속해나가는 것이 향후 한일 기업의 협력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일관계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일 그리고 유럽 등 15개국이 RCEP에 서명하였습니다. 관세철폐나 관세삭감, 투자, 전자거래 등의 룰을 정해서 지역 내에서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총생산이나 무역액이 세계 30%를 차지하는 무역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자유무역 추진과 일본에 있어서는 주요 무역국인 중국, 한국과 처음으로 무역협정을 맺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 되겠지만 한일경제협력회에서 현장에서의 교류를 끊임없이 지속하고 한일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장(다카다 노부아끼) : 네 감사합니다. RCEP이라는 커다란 동아시아의 경제지역권이 시작되려고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한일 기

업이 협력하고 연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국 측에서 서울 회의장에 지금 계시는 정구현 제이캠퍼스 대표연구원께서 『코로나 사태와 GVC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구현

제이캠퍼스 대표연구원



먼저 오늘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발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사실 지금처럼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과 또, 양국의 외교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회의를 개최하시게 된 양측 재계지도자들 김윤 회장님과 사사키 미키오 단장님을 포함한 양국의 기업 지도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주 뜻깊은 자리에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코로나 사태와 GVC의 변화인데 GVC라는 것이 Global Value Chain입니다.

사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Global Value Chain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데 하나는 코

로나19이고 또 하나는 미중패권경쟁이겠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큰 사건이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고 또 하나는 지난 15일에 있었던 여러분이 언급한 RCEP의 서명 사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의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소위 Value Chain decoupling인데 이것이 무엇인가하면 미국이 시도하고 있는 Value Chain에서 중국을 제외하는 것,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얹혀있죠. 사실은 미국과 중국만 얹힌 것이 아니라 일본, 한국, 동남아, 전 세계 생산이 분업상태가 되어있죠.

국제적인 분업이죠. 즉, 생산의 국제적인 분업을 가리켜서 Global Value Chain이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 시도하는 것은 GVC에서 중국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관심은 과연 이것이 가능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드릴 내용은 그 질문입니다. 즉, 과연 Global Value Chain에서 중국을 분리시키는 것이 가능 하느냐? 입니다.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Global Value Chain 재구성 될 것이다.

그러면 재구성이 어떤 방향으로 되느냐? 지역생산 분업 저는 그것을 Regional value chain이라고 부를 텐데요. 세계적으로 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즉, 동아시아, 북미, 유럽 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분업체제로 일부 분리될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GVC하고 세계의 3대 지역 GVC가 병행하는 구조로 갈 것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조업은 동아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국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분업의 핵심은 동아시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아시아는 아세안이 상당히 중요하게 떠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피하려면 아세안으로 가야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국과 아세안을 두 축으로 하고 일본, 한국, 대만이 공급하는 복합적인 동아시아 벨류체인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저는 보는데 그것을 촉진하는 RCEP까지 나왔습니다. 인도가 빠져서 아쉽기는 하지만 인도를 뺀 나머지 동북아 3개국,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15 개국이 모여서 만든 것이니까 이것이 세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COVID-19의 제일 큰 영향이 디지털화일 것 같은데 디지털화는 원래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3년 걸릴 것이 3개월 걸리는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국면으로는 첫 번째, 선진국과 후진국, 개도국의 개념의 혼란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19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 이탈리아, 영국 등 선진국이죠. 그동안은 선진국이 모든 것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무엇이 선진국인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도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재미있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 기후변화라는 것이 인류의 공통적인 과제라고 인식되는 것이 재미있는 현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번 COVID-19를 통해서 나타나는 동아시아의 강점입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G20 국가 중 경제성장률을 보면 유일하게 중국이 플러스 성장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성장인데 한국이 마이너스성장 중 가장 낮은 1.1%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G20은 아니지만 대만의 경우 굉장히

오랫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한명도 안 나왔고 어제 저희가 대만과 회의를 했는데 금년도 대만의 경제성장률이 1.6~2%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 한데 중국하고 대만이 이번 코로나의 피해가 가장 적은 나라라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인데 중국과 대만을 빼고도 한국과 베트남이 가장 성공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동아시아의 숨은 강점이 부각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세계생산분업(GVC)은 사실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되기 10년 전부터 축소되어 왔다고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생산 분업의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약 20년이고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92년에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 중국이 세계적인 제조업센터로 부상하였고, 두 번째는 ICT가 확산되면서 ICT산업은 하드웨어 쪽의 경우 조립을 하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가 모바일 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기들이 GVC에 맞는 상품이기 때문에 20년의 전성기를 거쳐서 2010년부터 세 가지 변화 때문에 하나는 경제의 서비스화 두 번째는 중국이 과거에는 부품소재를 수입, 조립하던 나라에서 2010년부터는 자체부품소재 공급능력이 좋아지면서 해외에서 수입하던 부품소재 의존도가 낮아진 것이고 세 번째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보호주의로 가면서 선진국이 수세가 된 것이지요.

이것이 중요한데요. 1945년부터 2010년까지는 선진국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2010년부터는 자유무역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곳이 개발도상국, 특히 중국이고 미국은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본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자유무역의 기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4~5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코로나사태로 보호주의 경향이 강화되느냐, 미중패권경쟁이 GVC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나, 세계경제는 3~4개의 지역 분업체제로 전환되는가, 동아시아 분업체계의 미래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보호주의가 특별히 강화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직 1년도 안되었기 때문에 다만,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발견한 것은 의료장비나 마스크 같은 소위 기본적인 상품에 대해서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소위 안보라는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겠다. 즉, 우리국가에 꼭 필요한 상품들은 일정부분 국내에서 생산해야겠다는 인식이 커진 것이 COVID-19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볼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는 COVID-19보다는 2018년부터 시작된 것이고 최근에 와서 작년이후에 미국의 중국규제는 기술이전에 대한 규제, 특히 5G에 대한 규제, 특히 화웨이에 대한 규제가 핵심입니다.

화웨이 기업은 중국에서 No.1 테크 기업이죠. 세계 5G는 통신장비 리드 아니겠습니까? 원가나 기술면에서 미국에서 볼 때 통신장비는 보안에 중요한 인프라인데 이것을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고 보면서 화웨이를 타겟으로 하는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늘었습니다. 화웨이가 반도체를 못 사게 한다든가, 미국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또는 미국이 동맹국한테 화웨이 제품은 사지 말라고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일본 통신회사들은 안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LG유플러스 회사가 3대 통신장비를 샀습니다만 이번 5G는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규제는 이제 증가가 되어 있고요. 중국의 미국에 대한 규제 같은 경우는 중국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즉, 미중무역전쟁을 확산시키지 않으려고 조심을 하고 있고 실제로 무역적자를 미국이 보고 있고 중국은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나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반도체는 생략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면 미국의 정부입장에서는 미국회사한테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줄이고 미국으로 돌아와라 즉, 리쇼어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턴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본국귀환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조업기반도 약하고 부품소재도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혜택을 많이 보는 나라가 멕시코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들을 조사해보면 중국을 떠나겠다는 기업들은 20%도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 기업의 입장에서 세계 1위, 2위의 국가인 중국을 떠나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이유는 GVC라는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부터 있었고요. 강점이 많습니다. 원가가 낮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장점이 많고 이미 구축된 벨류체인, 서플라이체인을 바꾼다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나 정치적인 압력이 있지만 기업들이 쉽게 기존에 구축된 생산 분업 체제를 바꾸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 지역으로 나갈 것으로 보는 것이고 그 중 하나가 동아시아 지역의 생산 분업인데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가치사슬은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70년대 초부터 1단계 일본주도, 2단계 복합분업, 3단계 중국주도가 되어 왔는데 중국이 보호주의도 있지만 생산원가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중국기업들도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기업, 한국기업, 일본기업 뿐 만 아니라 애플 같이 중국에서 생산하던 기업도 동남아로 가고 유럽도 동남아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동남아 아세안 10개국으로 많은 제조업이 이동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국이 내년에 G7 회의를 영국이 주최하면서 D10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핵심적인 이슈는 디커플링이 가능하겠느냐가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이것은 두고 보아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벨류체인은 점차 부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국을 배제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일부 산업에서는 기술적 중요성이 높은 예를 들어 5G, 반도체 등 일부산업에서는 눈에 보일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두고보아야하는데 그러나 크게 보면 리스트럭처가 일어나겠죠.

한국의 총수출 중 중간재 비중이 71%이고 아시아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71%이고 아시아의 최종재 수출액은 오래된 통계입니다만 3,290억 달러 중에서 부품소재 수입이 1,240억 달러니까 수입해서 재수출하는 가공무역이 아시아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아세안에 대한 한·중·일 공급 사슬을 보면 맨

위의 아세안 내부의 조달이 많습니다. 아세안이 상당히 생산 분업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중국, 일본, 한국의 순이고요.

이것도 조금 오래된 통계인데 2015년 통계이고요. 그러나 아세안에 대한 한중일 FDI를 보면 역시 일본이 가장 많고 중국, 한국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한중일 삼국과 아세안 10개국 간의 생산 분업과 경제협력이 앞으로 핵심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사태는 기존의 사태를 가속화 시키고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노력하겠지만 중국은 이미 세계 최강의 제조업을 가지고 있고 생산입지를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치사슬의 지역화가 일부 진행되고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의 가치사슬의 규모와 경쟁력이 세계에서 가장 주도적인 지역가치사슬이 될 것이라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특히, 아세안이 중요한데 이번에 RCEP가 사실은 RCEP라는 것이 아세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동아시아지역의 가치사슬이 앞으로 사실, RCEP가 크게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관세 인하가 10~20년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는 효과는 안 나타납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RCEP의 큰 점은 한일 FTA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도와 한일 FTA이죠. 또한, 백도와 한중일 FTA이죠. 그런 점에서 RCEP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 경제적인 의미는 적다고 봅니다만 세계적으로 GVC decoupling이 핵심이고 이것이 앞으로 전개되는 것을 두고 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다카다 노부아끼) : 정구현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에서 RCEP을 기대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국제 분업이 크게 변화될 것이라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일본 측에서 서울회의장에 계시는 후지요시 유우코우 서울재팬클럽 이사장님께 『코로나 상황에서의 한국 내 일본기업 상황 및 향후 기대』에 대해서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후지요시 유우코우(藤吉 優行)
SJC이사장 · 한국미쓰비시상사(주)
대표이사사장



여러분 안녕하니까? 서울재팬클럽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국미쓰비시상사의 후지요시 유우코우입니다.

한일 그리고 일한 경제인회의의 여러분께 평소 SJC에 대해서 지원해주시고 또 오늘 발표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에서도 매우 뛰어난 무역체제를 갖고 있고 감염자가 적은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을 저는 솔직히 매우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주한 일본기업의 감염자는 매우 적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

려서 한국의 의료종사자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개인적으로도 큰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JC의 활동을 말씀드린 후에 이 중에서도 재인식을 한 주한일본기업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고 한일 양국 경제연계 모습과 향후 기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JC는 1997년에 출범한 한국의 최대 일본 커뮤니티입니다. 개인 멤버가 있는 서울일본인회, 서울일본상공회, JV회가 함께 결합이 된 독특한 단체입니다.

한일 양국의 친목과 한국경제사업에 기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상호친목을 위한 문화, 예술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법인회원활동으로는 연구회, 세미나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SJC에서는 1998년부터 매년 현장의 의견을 정리를 해서 건의하는 형태로 한국정부에 제안을 제출하고 법안을 위한 긍정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이사회 멤버들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의 유명회 통상교섭본부장을 초빙해서 매년 하고 있는 건의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정부의 담당부에 계시는 분들과 매우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다는 점에서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34건의 건의사항을 정리해서 현재 제출하기 위해 최종 번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의는 주한일본기업의 사업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한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자분들과 유익한 간담회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SJC는 일본인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학교는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 현재 300명의 학생들이 일본 국내 학교와 동등한 수준의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회공헌으로 문화교류사업과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최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한일 교류 축제사업과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의 인턴사업, 인턴사원 채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사업에서는 작년에 32개사 55명의 인턴학생들을 맞이했고요.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22개사가 협력하여 35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SJC의 현재 최대 고민은 회원 수의 감소입니다. 저는 서울에 온지 5년이 됩니다. 그 5년 전인 2016년 초에는 1,900명 정도의 개인회원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1,400명이 되었고 법인회원은 410개사였는데 375개사로 줄었습니다.

개인회원은 정권교체 시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정세의 긴장도가 큰 영향을 미쳤고요. 법인회원은 작년 이후의 한일관계의 악화, 불매운동 등이 크게 영향을 미쳐서 급속도로 감소하였습니다.

여기 자료를 제출한 시점과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SJC활동은 봄부터 있었던 코로나 감염방지를 위한 노력 그리고 사회 거리두기 운동 등 일정 등으로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인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동했고 신입선생님들이 부임을 하셔야하는데 연초에 학교운영 그 자체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새로운 환경에 순응하면서 가능한 것은 온라인으로 바꾸었고요. 일본인 학교에 대해서는 일본대사관, 그리고 대사관의 강력한 리더십 덕분에 7월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신입교원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어렵긴 합니다만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원들 기업 활동에 있어서 무엇보다 큰 부담이 된 것이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듯이 비즈니스 왕래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일본에서 기술서비스가 지체됨으로써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적지 않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이긴 합니다만 부산-일본 회의와 공동으로 주한일본기업의 실태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한일 양국 정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6월 데이터입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179개사가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6월 시점에서는 아직 감염 리스크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왼쪽의 원 그래프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으로의 주재원 파견 수요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22% 기업이 신입주재원을 파견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중에 65%가 격리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고요. 파견주재원의 약 38%는 공장에 생산과 기술과 관련된 관계자분들이었습니다.

오른쪽 두 개의 원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으로의 출장자 파견 수요입니다. 한국과 일본 각국에 대한 파견 수요였습니다. 파란색을 먼저 봐주시길 바랍니다. 격리조치가 없어지면 이런 조건까지 포함시키면 대부분의 기업이

그 수요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오른쪽 원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목적의 대부분이 상담과 설비 관련한 수요였습니다.

여기에서도 기술 관련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기업에서 리스크를 아직 파악하지 못해서 출장 그 판단 자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에 쓰지는 않았습시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6월 초 시점에 사실 8개 기업만이 약 100명 정도 출장자를 한국에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비자를 취득해서 입국예정자를 포함하면 출장자는 200명에 달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 트랙을 도입하기 전이었고 당시에는 한국 입국 비자를 취득하는데 약 한달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격리면제를 취득하는 것도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만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일본에 돌아가면 2주간의 자가 격리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일본에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방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전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었습니다만 그런 수요가 있었고 그 상황은 지금도 변함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 기업의 약 3분의 1정도의 분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혹은 2주간 격리가 조금이라도 완화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한국으로 출장자를 파견하겠다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 인원은 어느 정도인가? 6월 초에 물어봤을 때는 합계 930명이었고 대부분의 출장자들이 절박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반대입니다. 한국기업의 일본방문에 대한 수요 또는 저를 포함한 일본 주재원의 일본방문에 대한 수요입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한국사원의 일본과견에 대한 수요입니다. 비즈니스 트랙 전까지는 입국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외일지도 모르겠지만 상당히 높은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일본인 주재원의 일본인 방문, 일본왕래에 대한 수요입니다. 한일 양국은 물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많은 주재원들이 처음부터 한국하고는 일본 국내로 이동하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왕래가 편리하다는 것을 전제로 업무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격리조치가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일 양국은 거리적으로 가깝다. 당일 출장이 가능한 만큼 가깝고 왕래수요가 매우 많은 한일 양국의 특징을 살려서 영업과 기술 간 왕래가 긴밀한 연계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는 설명하지 않았습지만 한일 양국의 비즈니스 연계가 일본과 한국 왕복의 직선 뿐 만아니라 각각 진출하고 있는 제3국 예를 들어 중국, 베트남 등 진출한 국가를 포함해서 즉, 선이 아니라 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답변 기업 중 한국에서 중국, 한국에서 베트남 등으로 그 회사에 엔지니어를 파견하지 못한다. 인재를 보내지 못해서 어렵다와 같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한일 양국의 연계는 이제 선이 아니라 면으로 지역 연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면에서의 협력요구가 높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래프와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에 있어서도 양국의 왕래수요가 높다는 것입니

다. 이 자료의 오른쪽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은 시점에서 전경련이 조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기업이 수평하고 긴밀한 왕래로 유지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JC는 이 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한일 양국 정부관계자에게 제출했고 비즈니스왕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덕분에 10월 8일부터 한일 양국의 비즈니스 트랙이 실현되었고 일정요건을 갖추면 14일간 자가 격리 없이 출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두 달 정도가 지났는데 아쉽게도 한국에서의 자가격리 신청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허가가 좀처럼 나오지 않아서 활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비즈니스 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원활한 비즈니스 왕래는 필수적입니다. 비즈니스 트랙의 운영 면에서의 개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의 긴밀한 왕래는 편의성이 높고, 당일 출장이 가능한 김포-하네다 간 그리고 양국 모두에 수도권에 가까운 공항을 이용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SJC는 김포-하네다 공항의 조기 부활 등에 대해서 9월말에 제출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 정부가 방역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어 감염을 막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안심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말 행복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지 비즈니스트랙의 운영을 완화하라는 저희의 일방적인 주장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예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염대책이

잘 되어있는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니까, 양국이 잘하고 있으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왕래를 효율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감염대책과 함께 밸런스를 갖추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양국의 비즈니스는 긴밀한 비즈니스 왕래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제에 대한 도전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축적을 해온 양국 간의 비즈니스 교류를 경쟁을 하면서도 연계를 강화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정부는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을 제로화 하겠다고 발표했고 디지털 청을 설립했습니다. 양국의 정책의 키워드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염 상황을 보면 시간이 조금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비즈니스 왕래와 함께 관광계, 유학생 왕래도 회복이 되어서 기존에 존재했던 양국의 단면적인 인적 교류가 부활하고 더욱 더 활발해지면서 그것이 작년부터 악화되어 가고 있는 한일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을 절실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재팬클럽에 대한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장(다카다 노부아끼) :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왕래가 정제되고 있는 것이 양국 기업의 협력연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국 측에서 서울회의장에 계시는 박순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상무이시고 연료전지사업의 실장을 맡고 계신 박순찬 실장님께 『수소 사회 도래와 비전 2030』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순찬

현대자동차 연료전지사업실장 · 상무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현대자동차 박순찬 상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한·일, 일·한 다양한 경제인 여러분들 앞에서 수소사회를 바라보면서 현대자동차가 품고 있는 비전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오늘 회의의 큰 주제인 SDGs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올해 나온 책인데요.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제목으로 제레미 리프킨이 쓴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한 페이지로 요약해봤는데요.

이 분의 시각에 따르면 지금 현재 21세기는 3차 산업혁명의 초입에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시각을 가진 근거로써 산업

혁명의 잣대로 네트워크, 동력원 그리고 운송 메커니즘의 세 가지 측면에서 혁신이 수반되어야 산업혁명이 일어난다고 보고 계시고요.

지금 21세기가 3차 산업혁명이라고 보신 이유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IT기술이 있고요. 두 번째 동력원으로는 수력과 태양열, 풍력과 재생에너지와 그리고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재생에너지와 수소와의 커플링에 일어나는 동력원의 혁신 때문에 3차 산업혁명이라고 보고 있는 관점에 있습니다.

수소라는 물질, H₂라는 가스가 재생에너지에서 가지고 있는 한 개 두 가지를 풀어주는 로제타스톤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에너지 캐리어 관점으로 보시는데요.

재생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시간의 제약성이 큼니다. 바람이 불 때, 해가 뜰 때, 물이 있을 때 등 시간의 제약성이 있는데 이러한 재생에너지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수소로 치환하여 저장해둔다면 시간의 제약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재생에너지가 갖는 장점이 재생에너지는 무한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무한한 전기에너지를 마땅히 저장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아직 인류가 찾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무한으로 발생하는 에너지를 수소로 전환해서 실어 나를 수만 있다면 공간적 제약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가 재생에너지와 커플링이 되어 3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동력원으로서 두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의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공격적으로 투자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 5월과 7월에 독일과 EU에서 수소 경제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숫자를 보시면 최근의 경제규모에서 조만간 보지 못했던 큰 숫자의 투자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고요. 한국은 작년 초 19년 1월에 유럽보다 한발 빠르게 정부차원에서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수소 경제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차근차근 수소경제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친환경 이슈가 왜 중요하게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밑에 2020년 위를 쪽 올라와서 보시면 95라는 숫자가 보이실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동차 회사가 유럽에서 자동차를 판매함에 있어서 당신들이 파는 자동차가 1km를 달리면서 발생시키는 CO₂량이 평균 95그램을 넘어서면 1그램당 95 유로의 벌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유럽에 100만대 자동차를 팔고 평균적으로 5그램을 초과했다면 곱하기 5를 해야 하고요. 거기에 그램당 95유로이기 때문에 95를 곱하게 되면 차를 팔아서 남는 돈보다 벌금 내야할 돈이 더 많아서 자동차 사업을 아예 영위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동차회사들이 그래프를 보시면 2030년도 59그램을 목표치로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때 되면 하이브리드 차가지고도 내연기관차로는 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2030년 이 타겟팅을 위해서 내연기관차를 배제한 순수 전기차와 수소연료 전기차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차는 방금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연료 전기차 두 가지가 있는데요. 흔히 듣는 질문이 앞으로 미래에는 배터리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 같습니까? 수소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답은 한결같이 “그 둘 다 필요합니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로써 이 장표를 구성해봤는데요.

여기 나온 데이터들은 저희들이 분석한 데이터가 아니고 일본의 경제 산업성과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회사들이 그리고 수소전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들이 예측하고 있는 2025년도 목표 재료비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355km구간에서 Cost Parity가 발생한다는 그래프인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배터리를 한번 충전하든지, 수소가스를 한번 충전하든지 한번 충전해서 355km 이상을 달리고 싶다는 분들한테는 수소연료 전기차가 재료비 측면에서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 이하만 달려도 된다. 나는 집 근처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경우는 배터리전기차가 재료비 측면에서 싸입니다. 아마도 고객의 사용용도와 니즈에 따라서 수소전기차와 배터리전기차가 공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요.

이것이 승용차이기 때문에 355km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게 만약 대형 트럭이 되면 아마 이것이 5분의 1, 10분의 1로 이 Cost Parity 구간이 줄어듭니다. 즉, 트럭이라고 하면 한번 충전해서 30km, 50km를 달리기를 원하는 운전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트럭의 경우에 50km에서 Cost

Parity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트럭 가지고는 연료전지 시스템이 답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상용차 연료전지시스템을 적용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이건 상용이건 도요타, 혼다를 비롯해서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연료전지 시스템을 상용화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었는데요. 현대자동차의 역사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사실 1994년부터 연구를 시작했구요. 98년도 캘리포니아 프로젝트에 참가하기 위해서 연구조직을 정규화 시켰습니다. 조직정규화를 한지 거의 6년 만에 독자적인 스택을 2004년도에 개발했구요. 스택 개발해서 이것을 차에 얹어서 제대로 된 차를 만드는 데까지 9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비로써 2013년도에 세계 최초로 양산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개발하였고요.

여기서 양산이라고 하면 고객 분들께서 비용을 지불하시면 이 차를 살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2013년도에 투싼을 발표해서 판매한 이력 그리고 그 경험과 데이터를 베이스로 2018년도에 드디어 2세대 NEXO를 출시했구요. NEXO는 지금 현재 10,000대 이상을 생산해서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고 5분 충전하면 600km 이상을 주행하는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에 준하는 킬로수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보증도 일반내연기관 자동차와 똑같이 10년 16만km를 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 있게 시장에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는 차이구요.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니콜라 사테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고 있

는데 니콜라가 여러 구설수를 하고 있지만 현대자동차가 이정도 규모의 대형 트럭에 실제 연료전지를 탑재해서 상용화시켜서 고객에게 인도한 것은 세계 최초의 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의 특성상 도전적인 것을 좋아하죠. 사실 평지에서 저런 트럭들을 굴리는 것이 저런 전동화 부품들을 개발하는 엔지니어 입장에서 편합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오히려 스위스의 산악지역에 수소트럭을 도전해서 성공했구요. 지금도 매달 10대 썩 선적을 하고 있고 내년이 되면 그 선적규모를 더욱 늘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트럭뿐 만 아니라 시내버스, 고속버스 그리고 각종 청소차 이런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연료전지를 탑재해서 양산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소차하면 일반인들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이 데이터들은 저희들도 출시 전에 테스트를 충분히 하겠지만 저희들이 출시한 양산차를 가지고 미국의 고속도로안전협회, 유럽의 인증 당국에서 테스트해서 별 다섯 개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얘기해봤자 소용없고요. 제3기관에서 안정성을 입증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탱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미국은 총기보유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시장을 진출할 때 미국규제당국으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았냐면 그 수소탱크의 수소가 차있는 상태에서 충을 쏘면 안 터져야 된다. 그것을 입증해내는 리포트를 내라는 요청을 받아서 실제로 NEXO에 장착되는 수소탱크에 수소를 채우고 원거리에서 총탄을 발사하는 실험 리포트까지 제출했습

니다. 걱정하시는 바와 달리 구멍만 뚫리고 그 다음에 뚫린 구멍으로 수소만 새 나가고 절대 폭발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입증을 해서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018년 12월에 수소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큰 의사결정 두 가지를 내렸는데요. 첫 번째, 수소차하면 옥신각신하는 것이 충전소가 먼저냐, 차가 먼저냐 라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 사슬을 이제 끊자고 해서 수소차를 공격적으로 시장에 출시하자는 의사결정을 했구요.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손해를 만회를 해야 할 측면도 있고 시중에 연료전지라는 것이 널리 보급되는 것이 우선이다. 시장파이를 키우는 것이 우선이다 해서 이 기술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시장에 내다 팔자 즉 NEXO에 들어가는 핵심엔진에 해당하는 연료전지시스템을 대외에 판매하는 두 가지 의사결정을 했구요.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대외판매를 활발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대외판매가 굳이 자동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연료전지 시스템이 발전기거든요. 수소와 공기를 집어넣어주면 전기가 생산되는 발전기이기 때문에 디젤발전기가 있는 그 어느 곳도 연료전지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기차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UAM, 비상발전 등 분야에도 연료전지 시스템을 적용하고자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저희들이 2030년이 되면 연료전지 시스템을 70만개를 생산하고 그 중 50만개는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차에 장착을 하고 나머지 20만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영역에

저희시스템을 적용하려는 목표를 세웠고 투자 계획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고 2025년까지의 물량목표와 투자는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25년까지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시스템을 판매하는데 국한하지 않고요. 수소사의 전체 Value chain에서 그 앞단에서의 역할에서 또 다른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맨 왼쪽에서 보시는 수전해 산업 쪽에서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리버스해서 이 수전해 분야의 역량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자체가 고압가스보다는 액체 상태로 운송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액체상태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수소도 전기 동력입니다. 전기를 만들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 동력에서 다른 데가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가 슈퍼캐패시터라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의외로 이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실 텐데 이것까지 포괄해서 전기 동력부품을 다양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수소사회는 저희들이 파이를 키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혼자만의 역할이 아니고 글로벌하게 수소 밸류체인에 뛰어 들 수 있는 다양한 기업들의 컨소시엄을 현대자동차가 주도해서 Hydrogen council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같이 공동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좌장(다카다 노부아끼) : 감사합니다. 수소사회 안에서 한일 연계 협력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견교환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조금 시간이 늦춰지고 있어서 충분한 시간은 안 되겠지만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발언을 하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측에서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을 하실 때 먼저 소속과 성함을 말씀을 해주시고 발언 시 3분 이내로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실 분 손을 들어 표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팬찮으시면 아소씨 큐슈와 한국의 교류라는 입장에서 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팬찮으시면 소개를 해주시지요?

아소 유타가(麻生 泰)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네 질문이 없으신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지금 좌장님께 받은 질문은 아님니다만 대부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놀랐던 것은 일본의 경우 대부분 현재와 과거, 지금까지의 기록을 말씀드리고 현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두 분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웠고 굉장히 역동적이었습니다. 주제를 조율할 때부터 약간의 갭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일본 측도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제 느낌을 잠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좌장(다카다 노부아끼) :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서석승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한국 회의장에서 후지요시 이사장님이 손을 들으셨는데요.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괜찮으신가요?

후지요시 유우코우(藤吉 優行)
SJC이사장 · 한국미쓰비시상사(주)
대표이사사장



아소 부회장님 실례했습니다. 저는 수소와 관련해서 지금 발표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흥미가 있어서요. 어쩌면 앞서 이미즈 사장님이 발표하신 것과도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일이라 좀 그런데요. 동기-세노로 프로젝트라든가 인도네시아 섬에서의 LNG사업이라든지 LNG를 수입하는 것은 저희가 거의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공동으로 자원개발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도

공유하고 또한, 같은 방향인거죠. 물류에서도 장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프로젝트의 장점들이 있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수소와 관련해서도, 아마 수소의 제조와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천연가스를 추출해서 물로 수소가 만들어져서 호주라든지 굉장히 태양광에 의한 발전으로 물분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한국과 일본은 그러한 수소 세계에 대해서도 자원을 같이 확보해나가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물류 상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한국과 일본과 연계해서 그 수소를 확보해나가는 리스크를 공유하고 혹은 하나가 되어서 물류의 방법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개발을 한다거나 미래에는 포스코라든지, 일본의 제철업체 등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관하는 보관용 통, 재료 그런 쪽에 굉장히 우리가 강점이 있으니까 세계 규격을 이끌 수 있는 어떤 형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박순찬 상무님에 대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장(다카다 노부아끼) : 감사합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지요? 한국 회의장에서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정구현
제이캠퍼스 대표연구원 · 前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파트너이신 후지요시 선생님이 서울 동경 간, 한국 일본 간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장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큰 장점이 무엇이나면 시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비대면회의가 일상화가 될 텐데요. 저희가 지금 이번 가을에 캐나다와 한번 회의를 해봤는데 연속해서 4시간을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차가 열두시간이라 저녁 두 시간, 아침 두 시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자야합니다. 인도하고 회의를 하려면 여러분들 세 시간 반 차이이기 때문에 한 세 시간밖에 못하는데 한일 간에는 시차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비대면회의가 되면 한일 간의 교류 면에서 또 하나의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다카다 노부아끼) : 감사합니다. 그럼 도쿄 회의장에 계시는 주일한국기업연합회의 김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서석송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그 다음에 한국 회의장에서 모리하라 씨께서 손을 들으셨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대하
주일한국기업연합회 회장



사실 올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이

저희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려움을 안겨주었고요. 현장에서 몸소 뛰면서 느꼈던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한일 양국은 끊임없는 대화와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특히 한일 간 젊은 세대 간 신문화나 문화콘텐츠의 교류를 보면서 정말 이것이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 경제인들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한일 관계가 좋아지리라 확신하고 오늘 저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제3국에서의 한일 간의 많은 교류를 존재한다는 글로벌협업을 보면서 한일 간의 앞으로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겠다는 소감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석송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다카다 코디네이터님 한국 회의장에 계시는 모리야마씨께서 발언해도 괜찮을까요?

좌장(다카다 노부아끼) : 네 모리야마씨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모리야마 토모유키(森山 朋之)
한국미쓰이물산(주) 사장



한국미쓰이물산 모리야마입니다. 정구현 선생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Value chain이 저희는 상사이기 때문에 무역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수입, 한국으로부터의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 자체가 상당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또한, 그 중에서 대중국이 많습니다.

역시 한국경제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크게 받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경제가 상당히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이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동아시아의 Value chain이라든가 Global value chain의 앞으로의 변화를 고려해봤을 때 한국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대중국 수출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아시아로의 분업, 한국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트렌드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좌장(다카다 노부아키) : 정구현 선생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정구현

제이캠퍼스 대표연구원 · 前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한국 수출무역에서의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첫 번째 질문이신데요. 아직은 한국 수출에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줄어드는 것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 중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한 25% 정도 되는데 안 줄어들고 있고 금년도는 제가 못 봤는데 금년에는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조립 생산하는 부분이 일부 동남아로 많이 이동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수출한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거기서 조립하고 수출하는 것이고 하나는 현지에 판매하는 것인데 현지에서 판매하는 B2B가 되었던 B2C가 되었던 계속 되겠죠. 왜냐하면 중국시장이 워낙 크니까요. 그러나 중국에서 생산하고 가공해서 제3국에 수출하는 부분은 동남아로 많이 이동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 대만처럼 한국정부도 중국에 간 기업들을 한국에 불러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한국의 지난 2년 동안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제조업의 여건이 조금 나빠졌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비교적 대만이나 일본보다 더 낮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은 적고 중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주로 원가가격위주로 경쟁하는 것은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국의 전통제조업은 제가 보기에 2013년부터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석승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한국 회의장에서의 질의나 코멘트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으

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좌장(다카다 노부아끼) : 그러면 도쿄 회의장에 젊은 경제인들이 오늘 참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OB로서 참가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쇼치쿠 주식회사의 오쿠보 선생님 의견주시겠습니까?

오쿠보 타쿠마(大久保 匠馬)

쇼치쿠 주식회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쇼치쿠 주식회사의 오쿠보 타쿠마라고 합니다. 2005년에 한일고교생 교류캠프라는 일한경제협회의 주최 행사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 이후 대학생들의 교류 행사에도 참가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지금 회장이신데요. 저도 사회인 OB로서 관련 활동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여서 풀뿌리 교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양국의 국민들의 교류가 제한된 가운데 협회에서 주최해주시는 각 행사, 교류캠프, 미래 회의와 같은 모든 행사들이 연기가 되었는데요. 내년도 이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구축해온 관계형성 유지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협회 분들과 함께 과거에 참가한 전 학생 즉, 지금은 사회인들이죠.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현역의 멤버들이 힘을 모아서 온라인으로 교류를 계속해나가자는 장을 지

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교류가 그러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화면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어떤 성격이 나타날지 또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이 사업에 대해서 한일청소년 Trial & Error 즉, 시행착오를 거쳐서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참가자 대학생 중에 원격수업이 되어서 같이 친구들과 만나기도 어렵고 집에 혼자 있었는데 이 교류회에 참가를 해서 인간으로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보통 교류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장소, 인쇄물 등 여러 준비가 많이 필요한데 온라인 교류회의 장점은 와이파이 즉, 인터넷만 있으면 세계 어느 곳에 있든 연결이 된다는 간편함입니다. 그리고 교류회라고 한다면 Task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어떻게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부족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면 오히려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욕과 니즈로 연결된다는 것을 오히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기업가분들도 이 풀뿌리 한일 교류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한,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도 더욱 이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관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다카다 노부아끼) : 감사합니다. 젊은 분들 그리고 풀뿌리 교류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라 가능한 회의시간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견교환 시간은 이것으로 종료하고

자합니다.

이 세션 가운데 한일의 교류라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코로나 상황 타개뿐 만 아니라 수소 사회, 국제협력, 미래지향적인 교류주제 등 여러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서 한일경제교류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협력을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바입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사무국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사회 : 발표해주신 분들, 다카다 코디네이터,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세션 코디네이터를 맡아 주신 다카다 씨와 발표자 분들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체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짧은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5시 10분부터 폐회식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자리에 돌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4. 폐회식

사회 : 지금부터는 고레나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성명 채택 (양국 낭독)



진행(고레나가) : 여러분 실제로는 만나

절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매우 활발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성명안을 양국 사무국이 발표하고 이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받은 후에 승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성명안을 먼저 일본어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어로 낭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시통역을 하지 않습니다.

【우치다 토시아키(内田 敏明) 일한경제협회 상무이사】



【서석송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안]

「미래를 여는 한일 협력 - 2020 SDGs 신시대 -」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를 2020년 11월 27일에 일본국 도쿄도에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와 온라인 접속하여 개최하였으며, 한국 측에서는 김윤 단장 등 98명,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단장 등 109명이 참가하였다.

현재, 한일의 경제계를 둘러싼 환경은,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단기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의 빠른 회복을 바라마지 않는다. 최일선에서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 양국의 의료 종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테마로 내건 SDGs는, 지속가능하고 보다 나은 세계를 지향하는 국제목표로, ‘건강과 복지’면에서 감염증 대책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 외에도 경제성장과 산업, 빈곤, 교육, 회복력(resilience) 등이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 19에 대한 영향을 극복해 나가는 것 자체가 SDGs의 대치이기도 하다.

경제면에서는, 한일 양국에 있어서 더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영향이 있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한일 경제인은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형태의 교류를 시작하고 있다. 이번 한일경제인회의도, 온라인으로 양국을 연결하는 형태로 개최할 수 있었으며, 인재·문화교류에 있어서도 web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양국 경제인은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미래를 여는 한일협력 - 2020 SDGs 신시대-’를 테마로, 진솔하게 양국 경제관계에 대해 토의했다. 그 결과, 상호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 아래와 같은 과제에 대해 연계해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기에 함께 선언한다.

- 아 래 -

1. 경제·인재·문화교류의 중요성을 확고히 받아들이고, 지속과 확대를 위한 대응을 강력히 추진한다.

(1) 한일 경제인은 이번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의 합의를, 자유롭고 폭넓은 무역·투자의 확대와 한일 기업의 제3국에서의 협업 등 경제활동 추진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환영한다.

(2) 또한, SDGs의 달성, 저출산·고령화·제4차 산업혁명·탈탄소 사회·글로벌 밸류체인 등 공통과제 해결을 위해,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한다.

(3)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통해 청소년 교류·지역간 교류를 활성화 하고, 상호이해·상호신뢰에 입각하여 한일우호의 인프라로서 흔들림 없게 추진해 나간다.

(4) 양국 정부에 대해서는, 본래의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한 민간교류를 한층 더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서포트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도, 원활한 비즈니스 왕래의 재개가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시책의 실시를 강력히 요망한다.

2.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계속 협력한다.

그리고, 다음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를, 2021년 한국에서 개최한다.

2020년 11월 27일

한국측 대표단 단장 김 윤
일본측 대표단 단장 佐々木幹夫

진행(고레나가) :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공동성명안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서석승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 한국 측에서는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행(고레나가) : 네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면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해주신 분께서는 박수로 표해주시길 바랍니다. 동경회의장, 서울회의장 모두 박수로 승인을 받았습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폐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양국 단장님께서 폐회 인사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한국 측 단장이신 김윤 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2) 양국단장 폐회인사

한국측 단장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폐회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회의였지만, 함께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화합의 강한 의지를 다시 다졌습니다. 비록 짧은 회의였지만, 코로나 이후 Global Value Chain의 변화, 제3국에서의 협력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이 많았습니다.

우리 경제인들이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는 계기였고, 2030년을 향해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개회인사와 기조연설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현재 양국 갈등이 원칙에 입각하되, 불만족의 균형점을 조속히 찾기를 소망하며, 오늘 양국 경제인의 공통인식과 결의를 공동성명에 담았으니, 양국 정부를 향한 간절한 호소가 가감 없이 전달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민간분야의 경제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선두에 서서, 한일 양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양국의 회의장의 참석자와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인들의 어깨가 무거움을 절감하기에,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내년 5월, 코로나 극복과 어려웠던 한일관계의 치유를 축하하며 한국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랜만에 직접 대면하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행(고레나가) : 김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본 측 사사키 미키오 단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본측 단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여러분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방

식으로 도쿄와 서울의 양 회의장에 많은 여러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나절이긴 했습니다만 솔직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성공리에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협조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회의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야말로 한일 양국의 경제, 인적교류, 문화에 걸쳐 3가지 축의 교류가 더욱 더 중요해지고 그 지속과 확대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책을 추진하는 것을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형태로 발신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개회식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박기영 통상차관보님이 그리고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특명명전권대사인 남관표 대사님,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님 그리고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님이 참석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일 양국이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양국의 발전과 우호관계의 재구축을 위해서 한국에 계시는 경제인 분들과 함께 노력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양국 정부에서는 양국의 젊은 이들 그리고 젊은 경영자들이 교류를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이해와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연을 해주신 여러 발표자 분들, 코

디네이터,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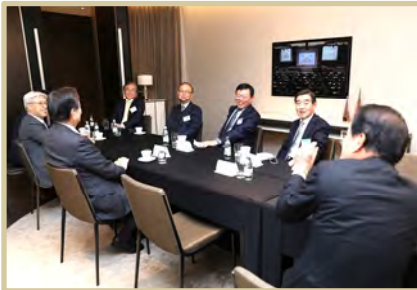
다음회의는 제53회 경제인회의가 됩니다. 이 회의는 앞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내년 한국 서울에서 개최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 될지 아직 모릅니다만 부디 여러분과 직접 뵙고 함께 유익한 회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간단합니다만 폐회인사말씀을 갈음 하고자 합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 종료선언

진행(고레나가) : 사사키 회장님 감사합니다. 도쿄회의장과 서울회의장에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사사키 회장님과 김윤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회의장 준비와 운영을 해주신 호텔 Okura 도쿄와 서울의 JW MARRIOTT 호텔 관계자분들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 온라인 기준으로 열린 회의에서 훌륭하고 완벽하게 업무를 해주신 통역 분들에게도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양국의 경제인 여러분 오늘 출석을 해주시고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여러분을 직접 뵈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한일경제인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 화보 •





●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의 화보 ●

